

**메가부동산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올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703)281-9660 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 RIGHT 2024 제 691511호

Tuesday, March 17 2026 A

## 유학과 취업 모두 '바늘구멍'

추천서 진위 확인 등 심사 강화  
스폰서 기피에 유학생 진로 불안

LA에서 브랜드 디자이너로 일하는 한인 이모씨는 최근 예술인(O-1) 비자 문제로 발이 묶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씨는 이미 이민서비스국(USCIS)으로부터 O-1 비자 승인을 받은 뒤 한국에 들어갔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았다. 비자 심사 과정에서 O-1 준비 당시 제출했던 추천서까지 다시 검토 대상이 됐다. 추천서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실제 작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씨는 "이미 미국에서 승인을 받아 큰 문제는 없을 줄 알았는데, 한국에서 다시 막히면서 혹시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커졌

다"고 말했다. 이민 변호사들은 최근 비자 심사 분위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진단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기존에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나 O-1처럼 청원 기반 비자의 경우 USCIS가 먼저 승인하면 대사관은 이를 존중해 비자를 발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대사관 단계에서 추가 사실 확인이나 행정 검토가 진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O-1처럼 추천서와 경력 자료 비중이 큰 비자는 제출서류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며 "한국에 갔다가 비자 스탬프를 받는 과정에서 추가 서류 요구나 심사 지연 사례 문의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취업 비자 문턱이 높아졌다는 체감은 O-1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LA 한인

사회에서는 전문직 취업(H-1B) 비자를 준비하던 유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스폰서를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학생 진로를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OPT는 유학생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는 관문으로 여겨지지만, 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학생(F-1) 비자 역시 대사관 심사 단계에서 비이민 의도 판단이 더 엄격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변호사는 "F-1이나 소액투자(E-2) 비자처럼 비이민 의도가 중요한 비자는 영사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며 "서류상 요건을 갖춰도 미국에 가서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거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강한길 기자

## 작년 연방 공무원 23만 감소 전년 대비 80% 증가

퓨리서치센터, 분석 발표  
트럼프 2기 집권 첫 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첫 해 동안 연방 공무원 수는 10% 조금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퓨리서치센터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5년 연방 공무원 수는 10.3% 줄어든 약 23만8000명이 순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공개된 정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다.

이러한 감소는 지난해 34만8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이 사직, 퇴직, 해고 또는 기타 사유로 공직을 떠났기 때문이며, 이는 2024년 대비 80.8% 증가한 수치다.

동시에 고용 인원은 약 11만6900명에 불과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55.6% 감소한 수치다.

전반적으로 2025년 전국의 실업률은 2월 약 4.1%에서 12월에는 4.4%로 소폭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시장을 나타냈다.

연방 예산 삭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를 효율화하고 낭비적이거나 정치적으로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기관과 프로그램을 없애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퓨리서치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인력은 2025년까지 42.6% 감소하여 약 4300명에서 2500명 미만으로 줄었다.

국제개발처(USAID)의 규모 축소는 훨씬 더 적극적이었는데, 직원 수가 92% 이상 감소하여 약 4900명에서 370명으로 감소했다. 이 외에

국립예술인문기금(NEH)의 상위 기관(-56.6%), 아메리코프(-43.6%), 중소기업청(-32.9%), 미국의 소리(VOA) 및 기타 국제 방송사를 감독하는 기관(-32.7%) 등이 있다.

이번 인력 감축은 주로 사무직에 집중되었고, 행정·정보 및 예산 관련 직종에서 가장 큰 폭의 감소가 드러났다. 이와는 다르게 국경 보안과 연관이 있는 법 집행 관련 직무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2025년 약 7500명을 직원을 추가하여 36% 증가했으며,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소폭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젊고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들이 이번 감축의 영향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받았는데, 35세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연방 공무원 전체의 18%에서 16.8%로 감소했으며, 경력 2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은 급격히 떨어졌다.

한편, 연방 공무원의 감소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했지만, 민간의 '직장 매달리기' 현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많은 공무원들이 자진 퇴직을 택하기도 했다.

실제로 상당수 공무원들은 해고 불안을 연장하기보다는 사직을 택하고, 사직금을 받으며 민간 일자리로 옮기는 편을 선택했다.

교육 업계에서 근무하다 퇴직을 택한 한 직원은 "언제 해고될 지 몰라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며 "마치 눈을 감고 앞을 바라보는 것 같으며, 어디가 살아남을 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성한 기자



케데헌, 오스카도 품었다... 장편애니·주제가 2관왕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15일 미국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2관왕에 올랐다. 매기강(왼쪽)은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 이재는 주제가 부문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 관계기사 A2면 [AP=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매핑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4/13 ~ 4/17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오스카로 정점 찍었다, 케데헌 그랜드슬램

골든글로브·그래미 이어 대기록  
매기강 "전세계 한인에게 바친다"

시상식 전 K컬처로 꾸민 특별무대  
관소리 OST에 한복 무용수 공연



15일 열린 제98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축하 무대에서 레이 아미, 이재, 오드리 누나(왼쪽부터)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가 '골든'을 열창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K팝 소재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오스카 시상식에서 황금빛 정점을 찍었다. 할리우드 스타들이 K팝 응원봉을 흔들며 주제가 '골든'의 라이브 공연을 즐겼다. K팝이 세계 주류 문화의 심장부에 우뚝 선 역사적 순간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LA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오스카 2026)에서 '케데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며 2관왕에 올랐다. 앞서 골든글로브 2관왕, K팝 최초 그래미상 수상 등에 이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며 K컬처의 세계적인 위상을 재확인했다. AP통신은 "이번 수상은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김구 선생이 꿈꿨던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는 나라'가 어느덧 현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매기 강 감독은 "저와 닮은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를 듣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다음 세대는 이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이상은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한인들에게 바친다"고 소감을 밝혔다.

주제가상을 받은 '골든'의 공동 작

사·작곡가 이재는 수상 소감에서 "이 곡은 성공이 아닌 회복에 관한 노래"라며 "저는 자라면서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았지만 지금은 모두가 한국어 가사로 된 우리 노래를 부른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골든'을 공동 작사·작곡한 아티스트는 이재와 테디, 24(서정훈), '아이디오'(IDO, 이유향·곽중규·남희동), 미국 작사가 겸 작곡가 마크 소넨블릭 등 총 7명이다.

이날 시상식 전 열린 축하무대에서도 '케데헌'의 존재감이 빛났다. 통상 오스카 시상식에선 주제가상 후보 5곡 모두 축하 공연을 해왔지만, 올해 주 최 측은 시간상 문제로 두 곡만 무대를 허용했다. 영화 '씨너스: 죄인들의 주제가 '아이 라이드 투 유' 무대는 시상식 1부에, '골든'의 무대는 작품상과 여우·남우주연상 등 주요 부문 시상을 앞둔 3부에 펼쳐졌다.

'케데헌' OST '헌터스 만트라'가 구

성진 관소리 가락으로 흘러나오며 시작된 축하공연은 사물놀이 악사, 저승사자, 장삼을 걸친 무용수 등의 굿과 탈춤으로 이어졌다. 이후 '케데헌'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의 목소리를 연기한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금색 장식에 달린 흰 무대의상을 입고 등장해 '골든'을 열창했다. 뒤에선 24명의 무용수가 금색 깃발 군무를 펼치며 장관을 이뤘다. 객석에 앉은 리어나도 디캐프리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은 응원봉을 흔들며 환호했다.

논란도 있었다. 이날 주제가상 수상 소감을 마친 이재가 공동 작곡가 중 한 명인 이유한에게 마이크를 넘긴 직후, 퇴장 배경음악이 나오며 화면이 전환된 것이다. 이유한이 준비한 종이를 꺼내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라고 운을 떼자마자 음악이 흘러나왔고, 이재와 마크 소넨블릭이 시간을 더 달라고 했지만 허사였다. 이에 인종차별 및 홀대 논란이 불거졌다. 미국 CNN도 이를 "K팝 팬들을 분노하게 할 만한 장면"이라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은혜·최혜리 기자

## 이대통령 지지율 60.3%...7개월만 최고치

이재명(사진)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상승하며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9~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60.3%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3월 1주차)보다 2.1%포인트 올랐다.

부정 평가는 2.1% 포인트 하락한 35.0%였고, '잘 모름' 응답은 4.7%로 전주와 같았다.

이 대통령이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60%를 회복한 건 지난해 7월 5주차(63.3%)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긍정 평가는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6% 포인트↑), 서울(5.0% 포인트↑), 인천·경기(1.5% 포인트↑), 부산·울산·



경남(2.7% 포인트↑)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0% 포인트↓)와 대구·경북(1.4% 포인트↓)에선 내렸다.

또 20대(8.8%포인트↑)와 60대(9.2%포인트↑)에선 긍정평가가 올랐지만, 40대(6.6% 포인트↓)와 70대 이상(2.3% 포인트↓)은 내렸다.

리얼미터는 "중동 사태 악화로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와 '조기추경' 등 선제적 경제·민생 대책을 신속히 내놓은 것이 지지율 견인차 역할을

을 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지난 12~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50.5%, 국민의힘이 31.9%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 대비 2.4% 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0.5% 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은 2.6%, 개혁신당은 2.8%, 진보당은 1.4%로 집계됐다. 무당층은 9.0%였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5.4%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 응답률은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4.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조문규 기자

## 이란 외무 "미국과 협상할 이유 없어...제3국엔 안전한 통행 제공"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보였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경우 통과를 요청하면 안전한 항행을 보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날 미국 CBS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결코 휴전을 요청하지 않았고, 심지어 협상조차 요청한 적이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미있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

령과 미국이 선택한 전쟁"이라며 "우리는 계속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쟁 종식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해 아라그치 장관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해야 할 어떤 이유도 찾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과 대화 중일 때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고, 이것이 벌써 두 번째이기 때문"이라며 핵협상 진행 도중 이뤄진 미국의 공습을 비판했다.

이란 핵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아라그치 장관은 400kg 이상의 농축 우라늄이 여전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독 하에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핵 관련) 협상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은 미래에 달려있다"라고 전했다.

**워싱턴 날씨 (°F)**

18일(수)	41-31	☀️	21일(토)	63-43	☁️
19일(목)	52-35	☀️	22일(일)	58-38	☀️🌧️
20일(금)	59-43	☀️	23일(월)	49-33	☀️

3월 17일(화) 41-24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SALE** **특점**  
교통 좋은 알박산드리아  
3층 타운 홈 \$749,900  
차고 2, 방 3, 화장 3½

**RENT** **특점**  
기차역 가까운 매나세스  
3층 End 타운 홈 \$2,900  
차고 2, 방 3, 화장 2.2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광고비는 쓰는데, 매출은 그대로인가요?"

구글에서 안 보이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 ☑️ 구글 검색 & 지도에서 고객이 먼저 찾게 만들고
- ☑️ 광고비 낭비 없이 실제 문의와 방문으로 연결하고
- ☑️ 매출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흐름을 만듭니다.

**intelisystems**  
Think eMarketing

지금 연락주세요 - 무료 로컬 마케팅 진단 (신문 독자 한정)

**571-506-0220**  
sales.intelisystems.com/k1

"2주 안에 새고객과 매출 향상을 경험하세요!"

구글 지도 랭킹,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광고,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문자마케팅, 소셜미디어, 유튜브 광고, 온라인 쇼핑물, 이메일 마케팅, 웹사이트 제작

www.intelisystems.com

# 워싱턴 포토맥 하수처리장 '긴급 보수 공사' 완료

### DC수도국, 물 공급 이상무 복구작업에 두달이나 걸려

워싱턴DC 수도국은 포토맥 하수처리장으로의 유량 회복에 필요한 최종 단계를 완료하고 정상 가동에 돌입했다.

셰리 루이스 DC수도국 대변인은 14일 관계자들이 일련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물 공급이 복구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번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온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뜻깊은 날"이라고 덧붙였다.

라고 덧붙였다.

사고는 지난 1월 19일, 포토맥 인터셉터로 알려진 거대한 72인치 송유관이 파열되었는데, 이 누출로 2억5000만 갤런의 미처리 하수가 워싱턴DC 북쪽의 포토맥 강으로 유입되었다.

워싱턴DC 수도국은 EPA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협력하여 누수 복구 및 포토맥강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작업을 진행해왔다. 포토맥 차단관은 1960년대 설치됐다.

루이스 대변인은 긴급 수리를 위해 작업팀이 포토맥 인터셉터 하류의 모든 물 흐름을 차단하고 긴급 복구 작업을



작업팀이 포토맥 인터셉터 유량 복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DC수도국 제공]

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성공적으로 끝내고 모든 물이 포토맥 차단수로 다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 다른 파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포토맥 인터셉터의 여러 지역도 조사하고 있다며 "기존 건설 당시 되메우기 과정에서 나온 돌과 바위들이 파이프 전체를 막아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강조했다.

포토맥 차단관은 1960년대에 설계가 시작되어 1964년에 완공됐다.

향후 단계와 관련 루이스 대변인은 환경 복구 작업은 여전히 필요하며, C&O 운하에서는 이미 작업이 시작되어 바이올렛 수문에 물을 가두고 있으며, 이 물을 이용해 운하의 물을 빼내어 작업자들이 우회로 공사에 사용했던 통로로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한 기자

## 애난데일 한인타운 보행자 사망 사고 운전자 기소

### 사고 희생자 김선호(56)씨 FCPD, 추가 정보 제보 요청

길을 건너던 50대 한인 여성이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

본보가 지난 4일 보도했던 애난데일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도로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한 50대 여성은 한인 김선호(56)씨로 확인됐다.

페어팩스 카운티 경찰국(FCPD)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달 28일 존 마르 드라이브와 레이븐스위스 로드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서쪽 방향으로 존 마르 드라이브를 주행하던 2012년형 BMW를 몰던 루키스 레세(20, 스포링필드 거주)가 길을 건너던 김 씨를 들이받았다.



한인 보행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애난데일 존 마르 드라이브.

김 씨는 사고 직후 페어팩스 소방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김성한 기자

국 숨졌다. 사고를 낸 운전자 레세는 다치지 않았고 현장에 머물렀다.

15일 FCPD는 레세가 보행자 정지 명령 불이행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고 밝혔다.

숨진 김 씨는 지난 수년 간 한인식당 매니저로 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했고, 부지런했다"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라며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FCPD는 사건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703-280-0543로 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워싱턴 동문들.

## 한국외국어대학교 워싱턴동문회

### '새 봄맞이 화합·감사의 밤' 개최

한국외국어대학교 워싱턴 동문회(회장 최태은)는 14일 애난데일 소재 한식당 '한강'에서 새 봄맞이 화합과 감사의 밤을 열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이날 신입회원 30여 명과 가족들이 참석해 서로 격려하고 새로운 화합을 다짐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특히 행사에서는 동문회 비영리단체(Non-Profit) 설립을 위해 헌신을 아

까지 않은 김대철 부이사장에게 전 동문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최태은 회장은 "동문 하나하나의 참여와 마음이 모여야 동문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올해는 동문과 모교, 그리고 한인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올 한해가 되길 바란다"는 격려를 주고받으며, 동시에 동문 네트워크의 비약적인 발전을 다짐하며 행사를 마쳤다.

김성한 기자

## 계란 가격 '뚝뚝'...1년 새 42% 떨어져

### 6.22달러서 2.50달러로 조류독감이 변수로 등장

조류독감 확산으로 폭등했던 계란 가격이 조류독감 완화로 급락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3일 연방노동통계국(BLS)이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계란 가격은 한 달 사이 3.8% 하락했고 1년 전보다 42.1% 내렸다.

같은 기간 전체 물가 상승률은 2.4%였다.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계란 가격은 2022년 시작된 조류독감 사태 이후 천정부지로 올랐다.

계란 가격은 2024년 12월 12개 가격이 약 4.14달러였으며 2025년 3월에는

6.22달러까지 상승했던 것이 최근에는 약 2.50달러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같은 계란 시장 안정은 조류독감 발생 감소와 생산 회복이 맞물리면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연방농무부(USDA)는 야생 조류 감시와 농장 방역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다만, 위험 요인도 없는 것은 아닌데, 최근 한 달 동안 약 14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조류독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한 기자

① 중앙일보 구독신청 : 703-281-9660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일은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항·뜸  
한약 (치료제, 보약)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제대사 연방외교수첩 사서
- 서울중의대학 중의대학사
- 임상 25년 경력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http://chaoorientalmedicine.com/

#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재선 도전 캐런 베스 LA시장 단독 인터뷰

# 한인 사회는 LA 성장 동력

시장부 적극적 소통·협력 약속  
한인 삶의 질 개선 더 힘쓸 터  
한때 한인타운 살며 발전 체감  
“시스템 바로잡겠다” 지지 호소

재선 도전에 나선 캐런 베스(사진) LA 시장이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것은 도시 전체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6월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지난 11일 본지와 단독 인터뷰를 가진 베스 시장은 “이제는 시스템을 바로잡을 준비가 됐다”며 재선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베스 시장은 특히 지난 3년간의 시장 활동 성과로 노숙자수 감소, 범죄율 하락, 주택 건설 패스트트랙 가동, 경찰력 확충 등을 꼽았다.

특히 베스 시장은 한인타운 내에서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는 쓰레기 무단 투기 문제와 열악한 도로 상태에 대해서도 행정적 한계를 인정하면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한인타운의 쓰레기 문제는 나도 참을 수 없는 이슈”라며 “2주 안에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베스 시장은 치안 문제에 대해서도 “신규 경찰 채용을 확대했지만 아직 많은 경찰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안심하기는 이르다”며 “한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베스 시장은 한인 사회를 LA 발전에 필요한 중추적 파트너로 꼽으며 적



극적인 소통과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LA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 디아스포라가 형성된 도시”라며 “그만큼 한인 사회는 LA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비즈니스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때 자신이 직접 한인타운에 거주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베스 시장은 “한때 한인타운에 살면서 한인타운이 발전하는 과정을 직접 체감했는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엄청난 발전을 이뤘다”며 “한인 사회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시장부도 한인 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있으며, 행정부 내에서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 70대 한인 뺑소니 사고로 사망

하모니카 앙상블 회원 이금순씨  
9일 LA한인타운서 귀갓길 치어



운 시니어&커뮤니티 센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대장암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으며 평소 하모니카 연주에 큰 열정을

LA 한인타운에서 뺑소니 교통사고로 당한 이금순(73·사진)씨가 나흘 만에 사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6시40분쯤 올림픽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교회 새벽기도에 참석했다가 자전거로 귀가하던 이씨는 올림픽 불러바드를 동쪽으로 주행하다 버몬트 애비뉴로 우회전하던 흰색 닷지 램프 트럭에 치였다. 트럭 운전자는 그대로 도주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이씨는 치료 중 지난 13일 끝내 숨졌다. LA한인타

보여 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내셔널 하키리그(NHL) LA킹스 홈구장 크립 토닥킵 아레나에서 열린 공연에 참여할 만큼 활발히 활동했다.

센터 관계자는 “고인은 하모니카 앙상블 멤버라는 사실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체포, DUI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원 등 상세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LAPD는 제보(213-473-0234)를 받고 있다. 이은영 기자

# “당장 모든 전쟁 끝내야”...

# 오스카 시상식서 나온 말말말

이란 전쟁 와중에 열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전쟁 종식과 평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배우 하비에르 바르뎀은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아카데미(오스카) 시상식에서 최고의 국제영화 부문 시상자로 나서면서 “전쟁 반대, 팔레스타인에 자유를”이라며 짧지만 강한 목소리를 냈다.

가슴에는 스페인어로 ‘전쟁 반대’(No a la Guerra)라는 문구가 적힌 배지까지 달고 등장해 분명한 뜻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교육 현장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 부문 상을 받은 ‘푸틴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의 주인공이자 공동 감독인 파벨 달라킨도 러시아어로 반전(反戰)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별종별 대신에 폭탄과 무인기(드론)가 떨어지는 나라들이 있다”며 “모든 아이의 이름을 걸고 지금 당장 모든 전쟁을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가장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정치 풍자는 유명 방송인이자 시상자인 지미 키멀의 입에서 나왔다.

키멀은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같은 영상물을 만들고 있다는 점을 치하하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아다시피 어떤 국가의 지도자는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인지는 말할 수 없다. 북한과 CBS만 언급하겠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은근히 꼬집었다.

키멀은 지난해 9월 방송에서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에 관해 이야기했다가 방송 중단 사태를 겪은 인물이다.

또 CBS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농담 소재로 삼아 심기를 거스른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의 종영을 결정해 논란을 부른 방송사다.

키멀은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내세운 다큐멘터리 ‘멜라니아’를 두고는 “백악관을 돌아다니면서 신발을 신어 보는 이야기”라고 혹평했다. 이어 “자기 부인이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두고 화낼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소수인종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끼며 이를 강조하는 수상소감도 이어졌다. ‘씨너스’로 남우주연상을 받은 흑인 배우 마이클 B.조던은 무대에 올라 흑인 배우인 덴젤 워싱턴, 윌 스미스, 할리 베리 등의 이름을 차례로 나열했다. 이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저보다 앞서 이 자리에 선 사람들 덕분이다.

한국계 캐나다인 메기 강 감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로 장편 애니메이션 상을 받은 뒤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 다음 세대는 기다리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이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고 감동적인 소감을 전했다.

# 레바논 피란민 100만명 넘어서...헤즈볼라 참전 2주만

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이란전쟁 참여 2주만에 레바논 내 피란민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레바논 사회부는 16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 개시 후 이날까지 공식 등록된 피란민 수가 104만9천 328명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13만여 명은 레바논 전역에 마련된 600여 개의 집단 대피소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대다수의 피란민은 친척 집이나 임시 숙소 등에 흩어져 있어 구호물자 전달과 생활 여건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저항의 축’ 일원인 헤즈볼라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하자 지난 2일 이란의 편에서 참전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다.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을 피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레바논 피란민.

이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와 남부 국경지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1천 명에 육박하는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지상군을 국경 너머에 투입해 헤즈볼라 대원과 관련 시설을 무력화하는 표적 작전을 이날 본격화했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장관은 “이미 대피했거나 현재 대피 중

인 레바논 남부의 시아파 주민 수십만 명은, 이스라엘 북부 주민들의 안전이 완전히 보장될 때까지 리타니 강 이남 지역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은 프랑스 등의 중재로 헤즈볼라 무장 해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 “인종차별 발언 듣고 폭행 당해”

LA한인타운서 한인 남성 피해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몇 주 전 저녁에 집 근처를 걷던 중 흑인 남성 2명과 시비 끝에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박씨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들은 자신을 중국계로 오인해 인종차별성 발

언을 했고 이후 몸싸움으로 번졌다. 박씨는 “왼쪽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직후 LA경찰국 올림픽 경찰서에 신고했고, 며칠 뒤 형사로부터 가해자 1명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송영채 기자

# GEICO is now available in our agency.

We're excited to offer our local insurance expertise along with the benefits of GEICO.



Competitive rates and savings



Outstanding claims experience



Easy access to great coverage

Locations are owned and operated by independent contractors/agents of the GEICO compan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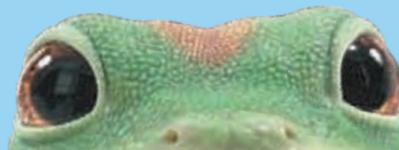
Call to get a GEICO quote today!

## 김원기 종합보험

(301) 962-8300

(301) 526-7000(c)

won@wkkinc.com



Get more with

# GEICO

# 90세 한인 잔혹 살해... 진실 묻히나

## 유일한 용의자 무죄로 석방 폴턴카운티 검찰 부실 수사

2024년 조지아주 벡헤드에서 일어난 90세 한인 노인 고 김준기씨 살해 사건은 지난달 27일 유일한 용의자가 무죄 석방되면서 미제사건으로 남게됐다. (2월 28일자 애틀랜타 중앙일보 A-1면·사진) 폴턴 카운티 검찰은 사건 17일 만에 용의자를 특정, 법정에 세웠지만 배심원 설득에 실패하면서 재수사를 포기했다. 또 다른 결정적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 사건은 장기 미제로 남게 될 공산이 커졌다. 초등 부실수사로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몰아붙인 검찰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13일 피해자 딸 박영비 씨는 본지와 의 통화에서 “처음 사건을 배정받은 당

당 형사가 수사에 미온적이었고 연락도 잘 안됐다. 1년 반이 지나 수사관이 교체됐지만 그랜 이미 재판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모자랐다”며 “뚜렷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다”고 전했다.

이날 본지가 입수한 범인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차매를 앓고 있었으며 벡헤드 노인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었다. 70대 간병인이 주5일 아침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방문해 그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 문은 평소 열려 있었다. 152cm 45kg의 작은 체구인 김씨는 2024년 9월 25일 아침 7시쯤 칼에 찔려 숨진 채로 간병인에 의해 발견됐

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흉부 자창. 범인은 김씨의 얼굴을 포함한 상체를 50~60차례 칼로 찔렀다.

검찰은 건물 안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녹화화면만을 근거로 60대 아파트 경비원 제니 윌리엄스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망 전날 오후 3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씨 집이 있는 층을 방문했다는 이유다. 엘리베이터를 내리고 6분 뒤 다시 탈 때 옷에 얼룩이 묻고 바지가 찢어졌으며, 손에 든 쇼핑백이 불룩해졌다는 점도 주된 근거였다. 또 쓰고 있던 안경과 마스크가 사라진 점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몸싸움 끝에 모습이 흐트러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입주민 민원에 따라 5층 쓰레기를 치우고 돌아온 것”이

라고 반박했다. 이날 용의자는 오후 3시에 출근해 밤 11시까지 야간 근무를 수행했다. 피고인 변호를 맡은 저스틴 쇼왈터 국선변호인은 “형편없는 수사 끝에 사건 현장에 있던 이들 중 누군가를 임의로 붙잡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부모의 한을 풀지 못한 억울함은 고스란히 딸들의 몫이 됐다. 박 씨는 “노인이고, 아시안이라는 이유로 매스컴 관심을 받지 못했고 그 결과 미진한 수사로 결정적 단서를 찾는 데 실패했다”며 “한인들의 단체 재판 참관을 통해 법원과 수사당국을 압박해야 하는 데 재판 날짜가 수시로 변동되는 탓에 그러지도 못했다. 이제라도 한인들이 재수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장재원 기자

## 147년 만의 폭염 온다

남가주에 이례적인 3월 폭염이 찾아온다. 일부 지역에서는 147년 만의 최고 기온 기록 경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국립기상대(NWS)에 따르면 LA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은 이번 주 내내 평년보다 15~25도 높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17일부터 19일 사이 기온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당국은 “이번 무더위가 3월 기준 기록적인 폭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LA 다운타운의 3월 최고치는 1879년 관측된 99도다. 이번 주 일부 지역은 이 수준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더위는 남서부 전역을 덮은 강한 고기압, 이른바 ‘열돔(heat dome)’ 영향으로 분석된다.

강한길 기자

# 팀은 4연승, 손흥민은 침묵

## L AFC, 세인트루이스 놀러 손, 후반 20분 교체 아웃 2-0 완승 속 한인 '아쉬움'

L AFC가 지난 14일 LA의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를 꺾고 메이저리그 사커(MLS) 시즌 4연승을 내달렸다. 2대 0 완승이다. 다만 손흥민은 이날 경기에서도 득점 없이 후반 20분 교체돼 경기장을 찾아 열띤 응원을 한 한인들에게 진한 아쉬움을 남겼다.

라크레센타 지역 몬테비스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인 학생 30여명도 단체로 BMO 스타디움을 찾아 손흥민의 첫 필드골을 간절히 바라며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학생들은 후반전 손흥민이 그라운드로 입장할 때, 하이파이브를 나누며 선전을 기원했다.

L AFC는 손흥민이 그라운드를 떠난 직후 연속골을 터뜨렸다. 기대를 모았던 '코리아안더비'도 성사되지 않았다. 세인트루이스의 정상병은 손흥민이 그라



L AFC의 손흥민이 지난 14일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SC와의 후반전 경기를 위해 그라운드에서 몬테비스타 초등학교 한인 학생들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김상진 기자

운드를 떠난 뒤인 후반 37분 교체 투입됐지만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이날 평소 서던 중앙 공격수 위치가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했다. 결과론이지만, 손흥민의 포지션을 둘러싼 선수 기용을 두고 마크 도스 산토스 감독의 전술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드필더로 나선 손흥민은 경기 내

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지만,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지는 못했다.

L AFC는 올 시즌 4경기에서 실점 없이 8골을 기록했다. 북중미카리브해 축구연맹(CONCACAF) 챔피언스컵 경기까지 더하면 공식전 7경기(6승 1무) 무패다.

김상진·장열결경준·송윤서 기자

## 현대차, 신형 팰리세이드 판매 중단

현대자동차가 안전 문제가 불거진 일부 신형 팰리세이드 판매를 중단했다.

로이터통신은 13일 현대자동차가 이날 미국과 캐나다에서 일부 신형 팰리세이드 6만8500대 판매를 중단하고 자발적 제품 수거(리콜)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7일 미국 오하이오주에

서 전동시트와 관련해 2세 여아가 숨진 데 따른 조치다.

현대차 측은 신형 팰리세이드 일부 모델에서 2·3열 전동시트가 탑승자나 사물과의 접촉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해당 사고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버지니아 한옥 저택 매물로 버지니아주의 한 산지에 자리한 한옥 양식 대저택의 모습. 최근 온라인 부동산 매물로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주택은 연면적 3474스퀘어피트, 대지 53.92에이커 규모다. 한국 전통 건축 양식을 바탕으로 한국산 자재와 장인의 손길로 2000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은 125만 달러다. [jamesedition.com 캡처]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독자가 행복 해진다**  
Koreadaily.com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701 Pender Dr. #16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LOGOS LAW GROUP**  
GUIDED BY FAITH, ROOTED IN INTEGRITY, SERVING WITH PROFESSIONALISM.

# 로고스 법률 그룹

어렵고 복잡한 문제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 곁에서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나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Jiyou Kim, Diane Lee, Jimmy Park, Sam Kim, Joy Lee  
세터먼트팀: Sammie You, Sook Kim

**비즈니스 / 부동산**

- 비즈니스 설립 / 매매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 라이선스 / 퍼밋
- 리스 검토 / 협상 / 작성
- 투자 / 파트너십 계약
- 주택 / 상업 건물 매매
- 부동산 명의 변경

**민사 / 형사 소송**

- 민사 소송 / 방어 (계약 분쟁, 임대차 분쟁, 교통사고 등)
- 형사 소송 방어 / 교통위반 / DUI / DWI
- 법원 출두 명령 대응

**이민법 / 시민권**

- 결혼이민 / 약혼비자 / 가족이민
- 취업이민 (비숙련공 / 숙련공 / 학사 / 석사 / 박사)
- 취업비자 / 투자비자 (E2 한국 / 캐나다)
- 형사법 위반 시민권 신청
- 이민 전반 상담 / 이민국 인터뷰

**상속 계획**

- 리빙 트러스트 / 유언장
- 위임장 / Medical Directive / Life Estate Deed
- Transfer on Death Deed

**기타 법률 업무**

- 개인 파산신청 / 법원 트러스티 협상
- 교통사고 세터먼트

상담약속: 전화 / 텍스트  
**703-621-7117**

info@logoslawgroup.com  
www.logoslawgroup.com

VA 오피스: 7617 Little River Turnpike #210, Annandale, VA 22003  
MD 오피스: 3450 Ellicott Center Dr. #101, Ellicott City, MD 21043

# ‘호르무즈 군함 파견’ 두고 5개국 ‘신중 모드’

트럼프 한·일·중·영·프에 요청  
즉답 아끼며 검토 의사만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5개국이 모두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NBC 방송과 뉴욕타임스(NYT) 등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인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14일 요청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NHK 방송에 “일본은 자국의 대응을 스스로 결정하며, 독자적인 판단이 기본 원칙”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군 함정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오는 19일 워싱턴DC에서



14일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의 석유 시설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인도양에 접한 푸자이라는 유전지대와 송유관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아도 석유를 수출할 수 있는 곳이다. [로이터]

열리는 미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CNN 방

송에 중국은 즉각적인 적대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선 직접적인 답

변을 하지 않았다.

프랑스와 영국도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에 향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호위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지만, 프랑스 외무부는 전날 X(엑스)를 통해 프랑스 함정들은 동부 지중해 일대에서 방어적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에드 밀리밴드 에너지안보 장관은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율형 기뢰 방지 장비 등 영국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과 관련해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청와대가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판단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정학·안보 분석가인 마이클 호로위츠는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큰 도박”이라며 “작전 측면에서 보면 매우 좁은 해협에 군사 자산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는 이란에 근거리에서 공격할 여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NBC에 말했다.

호로위츠는 이런 위협을 억제하려면 “단순히 공군력이나 해군력만으로는 부족하며, 해안의 주요 지역에 지상 병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르시아만과 외해를 연결하는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량이 통과하는 핵심 에너지 수송로로 매달 약 3천척의 선박이 이곳을 지나간다. 해협의 가장 좁은 지점은 약 39km에 불과하다.

## 더 거칠어진 트럼프 압박 “기억하겠다”

미국이 16일 한국에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 회복을 위한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해협 개방을 위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전투함 파견을 요청했는데, 이를 공식 제안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국 부장관은 이날 밤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장기적으로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처럼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중동 지역의 평화와 호르무즈해협에서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호르무즈해협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원론적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

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등 5개국을 특정해 호르무즈에 전투함을 파견하라고 요청했다. 직후 루비오 장관이 한국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미뤄 호르무즈해협 안전을 위한 미국의 연합체 구성에 한국도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이날 통화가 미 측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호르무즈해협의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그곳에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돕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거론하며 “응답이 없거나 부정적 반응을 보인다면 나토 미래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한다”고 압박 강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어 “중국도 도와야 한다”면서 이란의 주요 원유 구매국인 중국도 압박

했다. 특히 임박한 미·중 정상회담(3월 31일~4월2일 방중)을 거론하며 “그 전에 (중국) 입장을 알고 싶다. 2주는 긴 시간”이라고 했다. “우리는 연기할 수도 있다”며 일정 변경 가능성도 거론했다.

이날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대화에선 호르무즈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연합체 구성과 관련해 약 7개 국가에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전날 언급한 5개국보다 2곳이 더 늘어난 셈이다. 국가명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우리가)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한 가지는 분명하다. 우리는 이 일을 기억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 관련 기여 수준을 통해 ‘동맹 성적표’를 매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합체 구성에 여러 국가가 합의했다는 사실을 이르면 금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형구 기자

## ‘손가락 6개’ 영상에 네타냐후 사망설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 이후 중동 전쟁이 보름째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15일(현지시간) 공개적으로 밝혔다.

IRGC는 15일(현지시간) 자체 매체 ‘세파 뉴스’ 웹사이트를 통해 “만약 어린이들을 살해하는 이 범죄자가 살아 있다면 우리는 그를 계속 쫓아가서 온 힘을 다해 죽여버리겠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를 두고 “살아 있다면”이라고 언급한 것은 최근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네타냐후 사망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사망설은 지난 13일 공개된 네타냐후 총리의 영상 연설을 둘러싸고 제기됐다. 일부 온라인 이용자들이 영상 속 오른손에 손가락이 여섯 개처럼 보인다고 인공지능(AI)으로 생성된 영상이라는 미확인 주장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와 함께 “네타냐후가 이란의 공격으로 숨졌으며, 이스라엘 정부가 AI 생성 영상을 내세워 네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연설 영상 장면. [엑스(X) 캡처]

냐후 사망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도 SNS에서 퍼졌다.

미국 보수 정치평론가 캔디스 오웬스도 지난 13일 엑스(X)에 “비비(베냐민 네타냐후)의 애칭)는 어디 있다. 왜 총리실이 그의 가짜 AI 영상을 공개했다가 삭제하고 있느냐”는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다.

튀르키예 아나톨루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지난 14일 SNS에서 확산한 ‘네타냐후 사망설’을 “가짜 뉴스다. 총리의 신변에 이상이 없다”라며 일축했다. **한영혜 기자**

## 모즈타바 러시아 후송설... “수술 후 푸틴 관저에 입원”

(이란 최고지도자)

이란의 새 최고지도자로 선출된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신변을 놓고 러시아 후송설까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쿠웨이트 일간지 알자리다는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모즈타바가 지난 12일 밤 러시아 군용

기를 타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모즈타바는 도착 직후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러시아 대통령 관저 안에 있는 특수 병동에 입원 중이라고 한다. 알자리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모즈타바는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초기 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크다. 건물에서 발생한 잔해가 그의 신체 왼쪽 전반에 큰 부상을 입혔

다고 알자리다는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보당국 역시 모즈타바의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공습으로 이란 내에서 제대로 치료받기 어렵고, 위치가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자 러시아행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란 당국은 모즈타바가 건강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가 공개석

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데다 러시아행 등이 보도되며 의혹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 모즈타바가 내놓은 첫 번째 공식 성명을 놓고도 의문이 상당하다. 이란 고위 소식통은 알자리다에 “알리 라리자니 국가안보최고회의 사무총장이 연설문을 대필했고, 모즈타바는 이를 검토할 상태조차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근평 기자**

# “하나님이 주신 물질 어떻게 관리할까?”

##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한 특별 재정 세미나

- Part 1. 성경적 재정관과 청지기 정신: 돈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 정립
- Part 2. 개인 맞춤형 재정 플랜: 은퇴 준비, 저축 및 실제적 투자 전략

**일시** 2026년 3월 22일 (일) 5:00pm ~ 6:30pm (간단한 저녁 식사 제공)

**장소** 워싱턴지구한인연합회 7004 Little River Turnpike #L, Annandale, VA 22003

**등록** 박희숙 목사: 571-486-6430  
이경희 목사: 703-434-0363  
Email: wkpc.us@gmail.com



**Speaker**  
Karen Ahn (캐런 안)  
-High Calling Financial CEO  
-Financial Advisor & Certified Tax Advisor

주관 : 워싱턴지역한인목사회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 한식의 품격

4명의 셰프가 빚어낸 정통의 맛을 전합니다.

**깊이 있는 정통 한식의 맛!!**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즉석 칼국수 신메뉴 출시!



Weekly Special

따뜻한 즉석 칼국수와 깊은 맛의 닭볶음탕 런치 뷔페에서 만나요.~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홀 서버 (Hall Server)



#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30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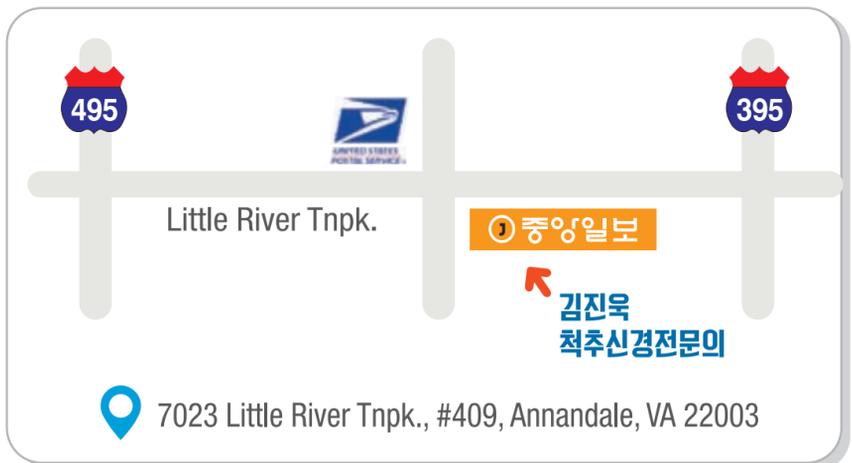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허리 통증
- 목이 뻣뻣한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 KOBE JEWEL GROUP

반지천국 애난데일, 볼티모어 순회보석쇼!

보석쇼핑, **벚꽃만개** 전을 노려라!!

방탄소년단 주얼리 / 랩다이아몬드 / 24k 건강팔찌

전품목 **30%~**  
최대 **80%** **대박세일**



**정품 BTS 스톤헨지 주얼리**  
**미주 본격 재출시!**

**BTS × STONE HENGE**  
Beautiful Moments COLLABORATION

SPECIAL PRICE

RM	Jin	SUGA
Jin	SUGA	J-hope
		Jung Kook

**159불**

한정수량 매진임박

100% 정품 보장 (GUARENTEED AUTHENTIC)

유사품 및 위조품 주의! (BEWARE OF IMITATIONS!)

고베주얼그룹 특별전 (KOBE JEWEL GROUP SPECIAL EVENT) - 행사장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케이블링블링**

**랩다이아몬드 & 모사나이트**  
**전품목 최대 30%~50% 세일**

미주 한인 사회 주목! 랩grown(Lab-Grown) 다이아몬드 주얼리

천연과 동일한 성분 & 광채, 합리적인 가격!  
새봄맞이 특별전  
정교한 세공, 빛을 극대화한 고급스러운  
**랩다이아몬드 & 모사나이트**  
지금 바로 행사장에서 만나보세요!

KJ 그룹 대부분 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 공방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주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 에게 인정 받는 **KJ 그룹 대세일의 기회**를 놓치지마세요.

24K순금도금 패션건강팔찌  
**\$199부터 \$399까지**

**미주전역 인기폭발**

**건강에 품격을 더하다:**  
24K Gold Plated Premium Edition

빛나는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건강의 비밀.  
이제 스타일과 건강을 동시에 잡으세요.

24K 순금 도금 | 특수 마이크로테크 기술 | 한정수량 특별세일

**핫 공짜선물**  
300불이상 구매고객에게  
정품 BTS 파우치 증정

**일본산 인공핵진주**  
**프리미엄 비드목걸이**  
8mm 초특가 전무후무 미친세일!! **\$159** 부터

프리미엄 한국세공 유행식 | 미주인사 선물용 최고

**새봄맞이 \$88불 코너**  
**화들짝 대박세일!!**

진주 귀걸이 / 펜던트 / 반지 / 브로치 등  
2026 새봄맞이 **선물용으로 좋은 제품**

반지천국 **최대 80% 세일**가로 만나보세요!!

**버지니아 볼티모어 행사일정안내**

애난데일 행사일정 9일간	볼티모어 행사일정 3일간
<p>3월 18일(수) ~ 3월 26일(목)</p> <p>애난데일 K마켓 푸드코트 내 특설매장 423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p>	<p>3월 27일(금) ~ 3월 29일(일)</p> <p>베세토 백화점 지하 1층 연회장 822 N.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p>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합니다.

카드 결제 가능 | 각종 신용카드 환영합니다. 홈페이지: [Kobewelgroup.com](http://Kobewelgroup.com) KOBE JEWEL GROUP

# 유가 사흘째 100달러대 ... 민생교란 주유소, 현상금 5억

(두바이유 배럴당)

(최대)

기름값 과도하게 올린 알뜰주유소 한 차례만 적발돼도 바로 면허 취소 원전 조기 정비, 가동률 60~80%로



**환율 증가, 금융위기 이후 최고** 16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증가가 전날보다 3.8원 오른 1497.5원으로 마감했다. 금융위기였던 2008년 11월 25일(1502.3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날 서울 증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환율이 표시돼 있다. 김경록 기자



타냈다. 고유가 장기화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해진 영향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3원 오른 1501.0원으로 개장했다. 주간거래에서 1500원 선을 넘은 건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2일(장중 고가 1500원) 이후 처음이다. 이후 당국 개입 경계감 등으로 환율은 소폭 내려 1497.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하면 1500원대에 머무르는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유뿐 아니라 알루미늄 등 원자재 시장으로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해상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자 중동 기업들이 알루미늄 생산량을 감축하면서 가격은 전쟁 이전과 비교해 8%가량 뛰었다. 알루미늄은 중동산이 전 세계 생산량의 9%를 담당한다. 흥성기 LS증권 연구원은 “알루미늄 수급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유사하게 이번 전쟁의 숨은 뇌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

다. 에탄올과 요소 가격도 전쟁 전보다 각각 10%·35%가량 급등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비료 생산에 쓰이는 황 공급이 호르무즈해협에 묶이면서, 세계 농업 생산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대응 수위도 올라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동 상황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정부와 당정 협의를 열고 중동 사태 관련 위기관리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이번 주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안도걸 의원은 “현재 수리 중인 원전 6기 정비를 조기에 달성해 원전 이용률을 현재 60% 후반대에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린 알뜰주유소에 대해선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기존 3회 위반이 아닌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이날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를 해주면 최대 5억원의 특별 검거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사제기(매점매석), 무자격 석유판매 등 불법행위 6건을 현재 수사 중이다.

오호정 기자

## 10개 4000원 ‘금 달걀’ ... 돼지고기도 7% 올랐다

(1년세)

중동 사태로 유가가 출렁이는 가운데 먹거리 물가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면서 축산물 물가가 크게 뛰었다.



가축 전염병으로 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있다. 사진은 16일 한마트의 축산물 코너.

1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축산물 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6% 증가했다. 특히 돼지고기(7.3%)와 계란(6.7%)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다. 2020년 대비로는 계란이 41.6% 올랐고 닭고기는 31.8%, 돼지고기는 28% 비싸졌다.

이달 들어서도 오름세가 지속하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인 가구 등의 소비가 많은

계란 특란 10개 평균 소비자가격은 지난주(3월 9~15일) 기준 3892원으로 1년 전보다 19.3% 상승했다. 특란 한 판(30

개) 평균 가격은 6762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올랐다. 계란 1개 가격이 400원에 육박한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번지면서 계란 생산이 감소한 탓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세다. 이달 둘째 주 기준 삼겹살은 100g당 2629원, 목살은 2456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4.3%, 5.3% 비싸졌다. 앞다리살은 1531원으로 전년 대비 6.5% 오른 수준이다. ‘가축방역망’에 구멍이 뚫려 물가를 더 밀어 올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어 올해 1월 말 구제역 발생이 9개월 만에 확인되는 등 3대 가축 전염병이 동시에 번지고 있다. 3대 전염병이 한꺼번에 발생한 건 2025년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다.

한편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특정 음식이 단기간 내 유행을 타고, 식재료 가격도 급등하는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날 가격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두바이 존드 쿠키(두존 쿠키)의 주재료인 카다이프(500g) 가격은 유행 전(지난해 9~10월) 1만8900원

에서 유행 후(지난 2월) 3만1800원으로 4개월여 만에 68.3% 급등했다. 두존쿠 완제품 역시 유행 전 개당 3000원이었으나, 유행 후 6500원으로 2.2배 뛰었다.

유행을 탄 봄동 비빔밥의 재료도 가격이 올랐다. 지난 1월 말 봄동(1kg) 가격은 4500원이었으나, SNS를 중심으로 각종 요리법·먹방 영상이 퍼지면서 이달 초 33.3% 상승한 6000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봄동 비빔밥 한 그릇(외식) 가격은 8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50% 뛰었다. 이동훈 한국물가정보 조사부 팀장은 “SNS를 통한 유행으로 특정 식재료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고 있는데, 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경희·남수현 기자

## 소·돼지·닭 전염병 2년 연속 동시확산

축산물 물가가 치솟으면서 방역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까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에 확산하면서 가축 살처분이 급증해 축산물 물가를 밀어 올리고 있어서다.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 발생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대

가축전염병이 동시 확산하던 지난해 3월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 대책을 내놓고 “가축전염병 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히려 올해 가축전염병 피해 규모는 예년의 몇 배로 커져 엄중한 상황이다.

돼지 사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 검출되고 구제역 백신 접종이 누락되는 등 방역 허점이 드러나면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모두 위기경보 ‘심각’ 단계다. 특별방역 대책 기간은 이달까지 한 달 연장됐다.

세 가지 가축전염병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국제 교역상 피해가 큰 A급 질병으로 분류한다. 또 국내에서는 세 가지 모두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16일 농식품부 집계에 따르면 2025~2026년 동절기 국내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는 57건으로 늘었다. 2022~2023년(32건)이나 2024~2025년(49건)을 훌쩍 넘는 수치다.

고병원성 AI는 지난 9월부터 6개월간 이어졌는데 이달 들어서도 전국 4개도(경기, 충남, 전북, 경북)의 가금농장에서 6건의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됐다.

# 마우리 왓츠 & 단 박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Watts & Park

“교통사고는 왓츠 & 박”

40여년의 법정 변호사 경력 / 3대째 변호사 집안

한국어 상담 안 윤희 (Yoon Hee Ahn)

히스패닉 상담 Consultas en Español 하이디 살게로 (Haid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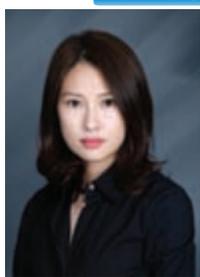
변호사  
Maury B. Watts, III  
Of Counsel / Retired  
마우리 왓츠



변호사  
Dan D. Park  
단박



변호사  
Roopal Gupta  
루팔 고크다



사무장  
YoonHee Ahn  
안윤희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 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 ▷ 자동차 사고, 오토바이 사고, 트럭사고, 자전거 사고 등 모든 교통사고 처리
- ▷ 사고로 인한 의료비 및 임금청구와 교통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 해결
- ▷ 차수리, 렌트카, 병원 등 모든 일체를 도와드립니다.

저녁 & 주말 전화상담 가능!  
Cell: 571-564-3282

무료상담

703.256.8797 / 301.495.5619 / 410.783.1220

7010 Little River Tnpk., Suite 200, Annandale, VA 22003

# 박형준 컷오프까지 꺼낸 이정현... 박 “망나니 칼춤”

(부산시장)

박형준 배제 땀 주진우 단수공천  
주진우·당 지도부는 “경선 해야”  
1호 현역 컷오프는 충북 김영환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가운데)이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충북지사 공천 심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많은 논의 끝에 현 김영환 지사를 이번 후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의 추가 공천 신청을 받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정현 살생부’에 발각 뒤 집했다.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업무 복귀 하루 만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를 결정한 게 발단이었다. 현역 시·도지사 중 첫 컷오프에 그치지 않고 박형준 부산시장 등 전방위 ‘물갈이 공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무자비한 학살”이란 당내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김 지사 공천 배제와 관련해 “한 사람에 대한 평가 문제가 아닌, 정치 변화의 문제”라며 “시대와 세대교체 요구를 힘있게 실천할 지도자가 과감하게 등장해야 한다

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당 안팎에선 “김 지사가 굶품 수수 의혹과 오송 참사 문제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데다 지지율이 저조한 부

분이 컷오프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자 모든 지역 일정을 취소하고 상경한 김 지사는 “아무 기준도 없이

컷오프를 당했다”며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도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다니 기가 막힌다”고 썼다. 지역 정가에선 이 위원장이 충북 정무부지사를 지낸 1986년생 여성 정치인 김수민 전 의원을 충북지사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 위원장은 박형준 부산시장 공천 배제 문제를 놓고는 일부 공관위원과 정면 충돌했다. 이 위원장의 컷오프 주장에 다른 공관위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박 시장을 배제할 경우 주진우(조선) 의원의 단수 공천이 불가피하자 과규택·서지영·정희용 의원 등 일부 공관위원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관련 논의는 중단됐다. 박 시장은 페이스북에 “당을 망하게 하는 행위이자 망나니 칼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며 강력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에 “저는 경선을 진심으로 원한다”고 밝혔고, 부산 지역 의원들은 “한쪽 날개를 부러뜨려 최종 후보로 나설 후보의 경쟁력을 스스로 낮추는 결정”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경선을 해야 한다”는 지도부 분위기를 전했다.

대구시장 분위기도 심상찮다. 이 위원장이 중진 전원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주호영(6선)·윤재옥(4선)·추경호(3선)·유영하(조선)·최은석(조선) 의원 등 현역 의원 5명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총 9명이다. 한 공관위원은 “이 위원장은 중진은 모두 배제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고 했다. 그럴 경우 이진숙 전 위원장과 조선의 유영하·최은석 의원이 경쟁하는 3파전이 예상된다.

김규태·양수민 기자

## “기초연금은 개인 지급, 부부삭감 안돼” vs “두명 산다고 생활비 2배 드는 건 아냐”

“수입 수백만·0원 노인, 연금액 같아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은 어떤가”

서울 관악구 박장희(69)씨는 기초연금·국민연금을 합해 월 100만원 정도 받는다. 박씨는 “가난한 사람에게 (기초 연금) 더 주면 좋지. 나라에서 가난한 사람을 더 챙겨야 한다”고 했다. 유모(67)씨는 “다른 수입이 없어 기초 연금이 많은 도움이 된다. 더 주면 좋지, 다다익선”이라고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X(옛 트위터)에 기초연금 개선 방향을 올리자 당사자들은 대체로 반겼다. 이 대통령은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부가 해로하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일이 아니다. 감액

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며 부부 삭감 축소를 제시했다. 또 “월수입 수백만원 노인이거나 제로(0)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같다. 이제는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인데 여러분 의견은 어떤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하후상박이라는 선별적·효율적 복지 카드를 꺼냈다. 아동수당 17세(중전 7세) 확대 공약을 취임 직후 12세로 줄인 것도 마찬가지다. 반면에 기본소득 시범지역 확대 같은 사안은 보편적 복지에 바탕을 두고 있어 실용적 복지에 접근하는 듯하다.

기초연금은 올해 65세 이상 소득 하

위 70% 노인(708만 명)에게 최대 월 34만9700원을 지급한다. 부부는 20% 깎는다. 5000여 개 복지 서비스에 명확한 기준이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노인 70%’라는 근거 없는 기준을 쓴다. 2014년 도입 당시 정치적으로 타협한 탓이다. 노인 인구 증가를 감당하지 못한다. 노인 70%의 소득·재산 기준(소득인정액)은 월 247만원(부부 395만2000원)이다. 이게 0원이든 212만원(역전 방지 최대액)이든 연금액이 같다. 이 대통령의 제안은 2022년 대선 공약과 달라진 것이다. 당시 기초연금 대상자 점진적 확대와 부부 삭감 폐지를 공약했다.

그러다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하후상박을 처음 꺼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한정된 재원의 효과를

높이려면 하후상박으로 가야 한다”고 말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소득에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급하면 소득 효과가 크지 않다. 노인의 50%로 축소해야 한다”고 말한다. 반면에 김미곤 전 노인인력개발원장은 “기초연금은 보편적 수당이기 에 하후상박은 맞지 않는다. 재정 절감이 목적이려면 ‘노인 70%’ 대신 ‘기준 중위소득의 〇〇%’로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부 감액 축소는 논란이 많다. 2024년 기준 삭감자는 297만 명(전체 수급자의 44%)이다.

당사자는 환영한다. 한모(65·경기 도 안양)씨는 “연금이 깎여 아쉽다. 몇 만원이 아쉬운데, 덜 깎으면 너무 고마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직후 국정기획위원회는 20%→내년 15%→2030년 10%로 삭감을 축소안을 제시했다.

김미곤 전 원장은 “기초연금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건데 부부라는 가구 단위로 깎는 건 맞지 않다”고 삭감 축소에 찬성한다. 반면에 양재진 교수는 “부부 생활비가 단독 가구의 두 배로 드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반대한다. 기초수급자 2인 가구 생계급여도 1인의 1.64배이 두 배가 아니다. 삭감 폐지에 연 2조 5000억원이 든다.

외국은 삭감 쪽이 다수다. 세금으로 기초연금을 운영하는 영국·네덜란드·호주·뉴질랜드는 23.94~34.5% 깎고, 스웨덴·핀란드 등 북유럽은 6.9~10.7% 깎는다. 보험료를 내는 일본은 감액하지 않는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 출생아 수 10년간 1위 달성군

16일 달성군에 따르면 유가읍의 인구는 지난달 기준 3만1261명, 주민 평균 연령은 37.6세다. 평균 연령 44세로 전국 82개군 가운데 가장 젊은 군으로 불리는 달성군에서도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유가읍은 2010년 말 인구가 2977명에 불과했던 소도시였지만, 대구테크노폴리스(726만㎡)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10배 넘게 증가했다. 이곳은 정부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돼 2006년부터 주거·상업·

교육·문화 등이 조화된 계획도시로 발전했다. 젊은 인구가 많이 유입되면서 2018년 12월에는 평균 연령이 33.5세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가읍뿐만 아니라 구지면 대구국가산업단지 등 신규 산업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달성군 내 8개 산업단지의 기업체는 11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다사읍 등에도 자연스레 신도시가 추가로 형성됐고 지난달 기준 달성군 인구는 25만3530명까지 늘어났다. 전국

82개군 중에 가장 많다.

특히 젊은 층이 모여 살면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달성군의 출생아 수는 1500명으로 전국 82개 군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 또한 1.02명으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웃돌았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0세의 나이로

당선된 최재훈 달성군수는 “달성의 미래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 있다”며 취임 직후부터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에 힘쓰고 있다.

달성군에 따르면 올해도 10개의 어린이집을 추가 개소하는 등 1104억원의 보육 예산을 투입한다. 특히 대구 최초로 어린이집의 보육 시스템을 영아 3명당 교사 1명에서 2명당 1명으로 전환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최애’ 정책으로 꼽히는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도 성과를 내고 있다. 4개소의 어린이집이 틈새 돌봄을 책임지면서 시행 3년 만에

이용 건수가 371건에서 2414건으로 6.5배 급증했다.

이외에도 2023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어린이집 영아교사 전담 배치, 2022년 대구 최초로 시작한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은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모든 아이의 교육권을 보장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달성’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경서 기자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 전 안 과

**26년 over 120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378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리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ion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ion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o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NVAR Top Producer  
▶ Zillow Premier Agent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버크 타운홈**

**SOLD**

**\$565,000**

방3/화3.5/파킹2  
부엌, Bath 등 전체 수리한 집  
Walk-out, 펜스, 덱 & 파티오

**비엔나 콘도**

**\$339,000**

방1/화1+Den, 굿로케이션  
전체마루, 넓은 덱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센터빌 타운홈**

**PENDING**

**\$680,000**

방4/화2.55/차고2  
End Unit

**신규 리스팅**

**클립턴 싱글홈 \$900,000**  
방4, 화3, 차고1,  
다수 업그레이드 완료

**SOLD**

**페어팩스 타운홈 \$675,000**  
방3, 화2.5, 차고1

**PENDING**

**COMING SOON**

**센터빌 타운 \$600,000**  
방/화2.5, 차고1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FAIRFAX REALTY**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 다이어트약 복용자 60% “비만 아니지만 살 빼려고”

“비만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 35% 전체 복용자 83% 여성, 3040 최다 70% 이상은 입맛없음 등 부작용 느껴

직장인 정모(33)씨는 지난해 병원에서 ‘다이어트약’이라고 불리는 경구형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비만도 과제 중도 아니었지만, 체중을 줄이고 싶어 서였다. 약 한 달간 복용했으나, 두통·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이 심해 복용을 중단했다. 정씨는 “전에도 다이어트 주사를 맞아보곤 했으나 주사형은 번거로워서 경구형 식욕억제제를 먹어봤다”며 “부작용이 이렇게 심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경구형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10명 중 6명가량은 정씨처럼 비만이 아닌데도 체중 감량을 위해 약을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약 70% 이상이 다양한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의약품 남용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구형 식욕억제제 복용자 중 59.5%는 복용 이유로 ‘비만을 진단받지 않았으나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응답했다. ‘의

사에게 비만을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해’(34.6%), ‘고혈압·당뇨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8.6%) 등 의학적 치료를 위해 복용했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주위의 권유’(8.9%)나 ‘호기심으로’(3.9%) 먹었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연구진은 2022~2025년 경구형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적 있는 257명(19~64세)을 조사했다.

이런 경향은 응답자들의 첫 복용 당시 체질량지수(BMI)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BMI 25 미만, 즉 비만이 아닌 상태에서 약을 시작한 비율이 조사 대상자의 54.1%에 이르렀다. BMI 30 이상인 실제 비만 환자는 12.5%에 불과했다. 경구형 식욕억제제는 체질량지수(BMI) 27 또는 30 이상인 사람에게 단기간 사용해야 한다는 대한비만학회의 진료 지침에 어긋난다.

경구형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사람은 대체로 여성 직장인이었다. 조사 대상 중 82.5%가 여성이었고, 연령대로 보면 30대(32.7%)와 40대(35.0%)가 많았다. 복용한 이유는 ‘체중 스트레스’가 압도적이었다. 응답자의 91.9%가 ‘체중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에 영향 받아 복용했다’고 했다. ‘사회 전반적으로 마른 몸매를 선호한다’는 응답도

74.7%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여자들은 모두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다이어트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최근엔 남자도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73.5%) 이상이 경구형 식욕억제제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입맛없음(72.0%), 두근거림(68.8%), 불면증(66.7%), 우울증(25.4%), 성격 변화(23.8%), 불안(22.8%) 순으로 부작용이 나타났다. 일부(1.6%)는 자살 충동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고서는 다이어트를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의료기관의 경쟁 등이 맞물려 오남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성분별로 남용 예방·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오남용 위험 환자를 상담과 치료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일부 식욕억제제는 근육 손실을 유발해 살이 찌기 쉬운 상태를 만들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인다”며 “특히 신경전달물질에 관여하는 약물을 식욕억제제로 혼용 처방할 경우 부작용이 증폭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북한 투표소 안내 로봇**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가 열린 지난 15일 평양교원대학교 도서관에 마련된 제77호 선거구 투표소에 한복 차림의 안내 로봇이 배치돼 투표자들을 환영하고 절차 안내 등을 했다. 주북 러시아 대사관이 16일 텔레그램을 통해 전했다. [연합뉴스]

## 함양 산불 방화범 잡고보니... 15년 전 ‘봉대산 불다람쥐’

(지난달 축구장 328개 면적 피해)

“불안 불안했지... 큰불 말고도 그 전에 여러 번 작은 불이났을게.”

주민들은 진즉부터 불안했다고 한다. 경남 함양군 휴천면 송전마을 이장 석연상(71)씨의 말이다. 이 마을은 지난달 21일 대형 산불로 변진 함양 마천면 한 야산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에 있어 당시 주민 69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산불 발생 전, 올해에만 마천면과 휴천면에서 2번, 1번씩 불이났다는 게 석씨 기억이다. 그는 “맨날 불날까 겁나스, 이거 방화 아닌가 생각했지”라고 말했다.

당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선 방화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었다. 2021년 고향인 함양에 홀로 이사온 A씨(60대)였다. 산에서 고사리·버섯을 캐거나 고로쇠 수액을 채취, 판매하며 살았다. 작은 산불이 잦자, 과거 A씨 범행에 관한 소문을 들은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다. 오죽하면 함양 산불 발생 직후, A씨 범행을 의심한 인근 마을 이장이 곧장 A씨 자택을 찾기도 했다. 그때 집에 있었던 탓에 A씨는 잠시 의심의 눈길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A

씨 범행은 드러났다. A씨 정체는 15년 전 울산에서 96차례 산불을 내다 붙잡힌 현대의 연쇄 방화범 ‘봉대산 불다람쥐’였다. 16일 경남경찰청은 산불 방화범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뉴스에서 산불 소식을 보면 희열감을 느꼈다”며 “불을 지르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하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2월 사이 경남 함양 마천면에서 2번, 전북 남원에서 1번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1건이 지난달 21일

발생해 3일간 이어진 올해 첫 대형산불 함양 산불이다. 함양 산불로 산림 234ha(축구장 328개 규모)가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A씨 방화인 것 같다’는 주민 진술을 확보, A씨 등을 용의 선상에 두고 조사했다. 불이 난 3곳 주변에서 A씨의 SUV 자동차 등 흔적이 확인됐다. 특히, A씨가 산불을 낸 현장에는 특이점이 있었다. A씨가 다녔던 뒤 약 2시간 뒤 산불 신고가 접수된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당시 마을 이장이 집을 찾았을 때도 A씨는 자택에 있을 수 있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현장을 떠

난 뒤 불이 번지게 해 알라미이를 만들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씨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7차례에 걸쳐 울산 동구 봉대산에 불을 낸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1년 출소해 함양으로 갔다. 당시 경찰 조사에선 1994년부터 96차례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산불방화죄를 적용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7년간의 범행 건수로만 기소됐다. A씨가 수사망을 피해 범행을 계속 이어가면서 ‘봉대산 불다람쥐’란 별명이 붙었다.

함양=안대훈 기자

## 김민석·트럼프 깜짝면담 이영훈 목사가 다리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3일 기존 관례를 깨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난 데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사진) 목사가 백악관 신앙사무국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와의 라인을 가동한 게 주효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의 말을 중

합하면 김 총리는 트럼프 당선에 핵심 역할을 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기독교 복음주의 라인과 직접 접촉해 미국 조야에 번진 ‘한국 내 종교 탄압’ 의혹을 해소하는 것을 이번 방미의 우선 과제로 삼았다.

자연스레 섭외 1순위 타깃은 트럼프의 20년 지기 ‘영적 멘토’인 화이트 국장이 됐다.

섭외 과정에서 김 총리 본인의 종교 네트워크가 지렛대가 됐다. 지역구 내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적극적으로 다리

를 놓아 밤미 하루 전 화이트 국장과 의 면담이 극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목사 측은 중앙일보 통화에서 “특히 화이트 국장이 여의도순복음과 오랜 강단 교류를 해 이 목사와 인연이 깊다”며 “이 목사의 주선이 트럼프와의 회동으로까지 이어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달 초 이 목사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한·미 추모

사업회’ 일정을 위해 방미했을 당시에 도 화이트 국장과 따로 회동했을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는 두텁다고 한다.

방미를 앞둔 지난달 22일엔 ‘국무총리 김민석’ 명찰을 달고 여의도순복음교회 예배에 참석했다. 이 목사가 연결해준 김 총리와 화이트 국장의 만남이 트럼프와의 깜짝 면담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이다.

윤지원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일 년에 80~100여 주재원 렌트 구해 중

주목	주소	기간	세입자
7209 Valleycrest Blvd, Annandale, VA	5280 Jule Star Dr, Centreville, VA 20120	4월 ~ 10월	\$2,000 ~ \$5,500 가격대 렌트
1936 Lord Fairfax Rd, Vienna, VA	1423 McLean Mews Ct, McLean, VA	5/5 입주가능 Coming Soon	\$3,300 교동/생필/학교/안전한 인기있는 터운하우스 단지, 방 3, 화장실 3, Nice Owner
3883 Billberry Dr, Fairfax, VA	2302 Tanglevale Dr, Vienna, VA	RENTED	주재원 (3년)
5901 Sunstone Ln, Haymarket, VA	7004 Eastern Red Cedar Ln, McLean, VA	NEW	4/1 입주가능
1465 Hampton Hill Cir, McLean, VA	1817 Fallbrook Ln, Vienna, VA	RENTED	\$5,200 평화로운 동네 상급하우스, 방 4, 화장실 5, 이쁜 정원, Flint Hill ES, Thoreau MS, Madison HS
6619 Weatherford Ct, McLean, VA	4126 Timber Log Way, Fairfax, VA	RENTED	마켓에 내놓자마자 너무 좋은 세입자 계약 완료, 주인/세입자 모두 해미
6501 Divine St, McLean, VA	8872 Ashgrove House Ln, Vienna, VA	RENTED	주재원 (3년)
		RENTED	공실임이 28개월 장기렌트 완료
		RENTED	주재원 (2+2년)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구강교육치과

#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http://www.naturadent.net)

**natura dent**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이란전쟁의 늪과 한반도... '피로한 패권국'과 무너지는 세계질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단기전을 공언하며 지난달 28일 이스라엘과 시작한 이란 전쟁이 확산 일로다. 전쟁 초반 피트헤그세스 전쟁부(옛 국방부) 장관은 “군사 공격에는 끝이 있다”며 “네이션 빌딩(국가건설)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란은 오히려 강경파인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새로운 최고지도자로 옹립하고, 결사 항전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이란은 미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호르무즈해협을 사실상 봉쇄하며 유가를 끌어 올리는 전략에 나섰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은 아랍에미리트(UAE) 푸자이라의 석유 시설에서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인도양에 접한 푸자이라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하지 않고 석유 수출이 가능하다. [연합뉴스]

## 트럼프의 단기전 오판

그 결과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첫 주 대비 20% 급등하며 갤런당 4달러 선에 근접했다. 유가 상승은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과 정권 심판론에 즉각 반영되는 가장 민감한 ‘체감 경제지표’다. 단기전으로 이란을 제압하려던 트럼프의 계산이 이란의 전략에 휘말리는 양상이다. 예측 불허로 빠져드는 이번 전쟁이 세계질서와 한반도에 끼치는 영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한다는 점이다. 1945년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엔을 중심으로 구축된 주권존중, 영토보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원칙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모든 유엔 회원국의 무력 위협과 사용을 금지한 유엔헌장(2조 4항)은 집단 안보의 핵심이다. 자위권이 발동되는 경우를 제외하곤 군사력을 동원한 공격을 허용치 않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이란을 “임박한 위협”이라거나 “2주 안에 (이란이) 미국을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란과 협상을 진행하던 중 군사행동을 선택하며 ‘힘에 의한 현상변경’에 나섰다.

문제는 국제 질서를 수호해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파괴의 주체가 됐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미국의 베네수엘라 및 이란 공격은 유엔 체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 세계대전의 참화 끝에 강대국 간 협력으로 전쟁을 예방하려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구상이 종언을 고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미국의 ‘과잉 팽창’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2001년 이후 ‘테러와의 전쟁’에 20년 가까이 함몰돼 있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격 철군을 단행한 건 중동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다시 중동에 깊이 개입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와 유가 급등을 경험한 미국이 다시 중동 문제에 장기적으로 얽힐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과 올해 1월 국방전략에서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핵심 전략 지역으로 규정했다.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을 힘으로 억제한다는 전략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 중동전에 또 발 담근 미국 미·러, 국제 질서 흔들기로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일삼아

전쟁이 진행 중인 유럽, 중국과 대치하는 인도-태평양, 그리고 다시 중동까지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처지다.

이는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가진 패권국이라기보다, 여러 전선에서 전쟁을 끝내지 못한 채 국력을 소진하는 ‘피로한 패권국’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패권의 힘이 분산된 공백을 틈타 도전국들이 현상 변경의 기회를 엿보는 ‘무질서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규범이나 공공재 제공 측면에서 미국을 대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현재 정세는 다극화라기보다 관리되지 않는 연쇄 위기에 가깝다.

셋째, 이란의 ‘수평적 확장’ 전략이 주는 위험한 시사점이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맞설 때 전장을 주변으로 확대하는 이 전략은 일단 효과를 보고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걸프 지역

의 미군 기지, 항만, 정유시설 등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타격해 최소 9개국을 전장으로 끌어들이었다. 안전한 금융·관광 허브였던 두바이와 도하 상공에 미사일이 교차하는 순간,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투자 심리를 흔드는 전 지구적 위기가 된다.

이 모델은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매력적인 교범이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유사시 전장을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 내 미군기지나 괌, 하와이 등 태평양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전략을 고도화할 것이다.

## 안보 공백 노리는 도전들

이런 변화는 한반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우선 동맹 정치의 피로와 균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여러 전선에 동시에 개입하는 미국은 동맹국에 더 많은 부담 분담과 역할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유럽에는 우크라이나 지원과 재무장을, 중동에는 해상 안보와 에너지 안정 비용을,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 역지의 최전선 역할을 요구하게 된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 14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5개 국가에 호르무즈해협으로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과 함께 해협을 개방되고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요구도 더욱 거세질 수 있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일본·인도 등의 협력을 강조하며 이들 국가가 필요한 역량에 투자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한국은 인·태 안정에 기여할 능력과 경험, 전략적 위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에 역할과 책임 요구가 이미 현실이 된 것이다. 동시에 동맹 내부에서는 ‘미국의 전쟁에 언제까지, 어디까지 동참할 것인가’라는 피로와 회의가 커질 수 있다. 동맹을 더는 절대적인 안보 울타리로 보지 않는 시각도 확산할 수 있다.

이번 전쟁은 단순한 중동 분쟁을 넘어 전후 국제질서가 균열되는 또 하나의 분기점이다. 강대국이 규범을 약화시키고, 약한 국가는 전쟁을 수평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 결과 국제질서는 다극화라기보다 질서를 관리할 중심이 부재한 ‘무질서의 시대’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역 분쟁이 서로 연결되며 연쇄 위기로 확대될 위험도 커진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미국의 전략적 부담이 커질수록 동맹국에 대한 역할 요구는 더욱 강해질 것이며, 동시에 북한은 전장 확대 전략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것이다. 결국, 이번 전쟁은 한국이 동맹, 안보 전략, 그리고 한반도 위기관리 방식을 다시 점검해야 하는 계기인 셈이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이란 전쟁이 앞당긴 저비용 글로벌 시대의 종말

중동전쟁의 여파가 피부에 와 닿는 요즘이다. 국내의 증시가 요동치고, 주유소 기름값이 치솟기 때문만은 아니다. 더 큰 청구서가 날아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우리도 중동전쟁 속으로 빨려 들어갈 참이다. 벌써 파병 반대와 찬성 여론이 분분하다.

군함을 보내게 되면 베트남 전쟁 이후 전장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한국군

은 걸프전과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 등 국제분쟁 파병 전례가 있지만, 주로 의료·재난·치안 등에 중점을 뒀다. 호르무즈해협은 다르다. 이란이 드론과 미사일을 날려서라도 지키려 하는 최전선이다.

호르무즈해협은 세계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곳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8~70%를 이 해협에 의존한다. 인근에 한국 선박 26척의 발이 묶였다. 자

국 상선을 호위하라는데, 무작정 못 간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협조 여하에 따라 미국의 무역 보복과 동맹에 대한 재평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다만 이란으로 먼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냉전 종식 후 30년간 세계 경제는 안정적 국제 유가와 자유 무역, 항행의 자유라는 세 기둥 위에서 번영했다. 1990년부터 2010년대 후반까지 유가가 장기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된 덕에 글로벌 제조 네트워크와 장거리 운

송이 가능했다. 세계무역기구(WTO)와 자유무역협정(FTA), 다국적 공급망을 통해 자유무역이 흥하고 세계 경제는 통합됐다. 호르무즈해협과 남중국해 등의 항로는 미군 등의 보호로 안전했다. 기업은 비용과 효율만 따지며 사업을 글로벌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젠 효율보다 안전, 저비용보다 지속가능성으로 관점이 옮겨갔다. 트럼프가 물길을 바꾸더니 이란이 췌기를 박았다. 트럼프의 관세가 자유무

역 쇠퇴의 서막을 올렸고,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는 병목 지점 하나로 세계 경제가 마비될 수 있는 취약성을 보여줬다.

글로벌화가 멈추진 않을 것이다. 비용이 오르고 예측 불가능성이 커지는 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식량 생산, 물류, 교통, 소비자 물가 상승 등 인플레이션도 자극할 수 있다.

박현영 경제선임기자

#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언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 유재산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산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이곳에서

2025 Return

T A X

##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우리말 바꾸기

진천에 살아?  
진천에서 살아?

친구가 말했다. “진천은 말이야 생겨진천이라고 하지. 살기 좋은 곳이라는 뜻이. 그런데 나는 ‘진천에 산다’고 하는데, 서울에 사는 친구는 ‘서울에서 산다’고도 자주 그러데. 서울 사람들은 ‘서울에서 산다’고 그러는 거? 서울하고 말이 달라서 그런 거, 아니면 둘 중 누가 틀린 거?”

나는 “둘 다 맞는 거”라고 했다. ‘살다’는 말 앞에는 그 장소 뒤에 ‘에’도, ‘에서’도 붙는다. ‘진천에 산다’고도, ‘진천에서 산다’고도 할 수 있다.

둘 다 자연스럽게 오간다. 다만 이때 어감은 조금 다르다. ‘진천에 산다’고 하면 단순히 거주하거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된다.

정적이어서 ‘움직임’이 잘 안 느껴진다. 그렇지만 ‘진천에서 산다’고 말하면 ‘움직임’ 같은 게 다가온다.

존재 여부를 나타내는 말 ‘있다’와 ‘없다’가 쓰인 문장에서는 ‘에’가 자연스럽고, ‘에서’는 아주 부자연스럽다.

누구나 ‘공원에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공원에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색해한다. ‘공원에서’ 뒤에 어떤 동작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원에서 사람이 없다’고도 하지 않는다. ‘산책한다’는 움직임이 뚜렷한 말이다. 그래서 ‘공원에서 산책한다’고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낯,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홍말벗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체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한인 월드컵준비위’ 출범에 거는 기대



박철웅  
일사회 회장

발전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월드컵 응원에는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한국 대표팀을 응원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하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그것은 ‘우리끼리의 축제’에 가까웠다.

2026년은 달라야 한다. 월드컵 기간 LA에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이다. 이들은 단순히 축구 경기만 보러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음식, 거리와 사람들을 경험하기 위해 움직인다. 이 흐름 속에서 한인타운이 반드시 방문해야 할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파급력은 절대 작지 않을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이 기회를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월드컵 기간 한인타운을 ‘K-커뮤니티 페스티벌 존’으로 조성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K-푸드와 K-팝, K-뷰티, 한국 전통문화, 한국 관광 콘텐츠를 결합한 거리 축제를 연다면 방문객들은 자연스럽게 한인타운을 찾게 될 것이다. 한인 식당과 카페, 호텔, 소매업체들은 월드컵 경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한인타운의 활력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월드컵 기간

형성된 문화적 경험이 행사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인타운의 브랜드화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월드컵이 끝난 뒤에도 관광객들이 찾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는다면 그 경제적 효과는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과제는 주류 사회와의 협력이 다. LA는 거대한 도시다. 대형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시 정부와 경찰국, 소방국, 교통국 등 다양한 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준비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준비위원회는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공식 파트너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치안, 교통, 공공장소 사용, 행사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문제는 단일 창구를 통해 체계적으로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요구만 하는 커뮤니티가 아니라 책임 있는 시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행사 이후 거리 정리와 안전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주류 사회 역시 한인 커뮤니티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신뢰는 월드컵 행사에만 머물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는 한인 사회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월드컵을 또 한 번의 축제로만 소비하고 끝낼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의 미래를 바꾸는 역사적 기회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준비위원회가 어떤 비전과 전략을 세우느냐에 달려 있다.

2026년 여름 LA에 울려 퍼질 한인들의 함성은 단순한 응원을 넘어 미주 한인 사회의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서는 대통합의 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아침에

프리지아의 강한 생명력



최미자  
수필가

얼마전 뉴욕이 폭설로 난리가 났을 때, 샌디에이고에는 비가 흠뻑 내렸다.

그런데 그 무렵 나는 온 천지가 빙빙 돌며 침대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었다. 급히 깊은 새벽잠을 자고 있던 딸을 깨워 응급실로 향했다. 유난히도 짙은 안개가 산마루를 휘감은 탓에 한 치 앞도 분간이 어려워 느린 속도로 고속도로를 달려 겨우 병원에 도착했다. 그 시간은 아마도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십년 만에 또 높은 혈압으로 가족을 놀라게 했다. CT 스캔 후 여의사와 친철한 남자 간호사가 나를 안심시켜주었다. 마그네슘과 포타슘 치료도 차츰 혈압을 내려가게 했다. 날이 밝자 주치의는 이석증인 것 같으며 약을 처방해주었다. 처음 듣는 병이라 집에 돌아와 인터넷 검색을 하고 지인들에게도 물어보니 나이 들면 생기는 병이란단. 늘 약물 부작용이 즉각 반응하는 나는 물리치료

하게 터지면서 달콤한 향기로 내게 희망을 주며 나를 일으켜 세운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딸을 불러 시멘트를 뚫고 나오는 꽃들의 저력을 보라 했다니, 그 생명력에 놀라 사진을 찍는다.

프리지아의 빨간빛은 정열, 흰 꽃은 순결, 보라색은 동경, 분홍은 여성스러움이 꽃말이다. 나의 팔에 핀 노란색은 ‘새 출발을 응원한다’는 말이 있다. 그것도 우정으로. 사실 한국에 있는 내과 의사 친구가 나의 회복에 한몫했다. 카톡으로 내 병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변하지 않는 우정으로 성심성의껏 조언을 해주었다. 남아프리카가 원산지인 프리지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듯 나도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다. 세월과 함께 부서져 가는 내 몸은 연약한 프리지아 같지만, 강한 정신력으로 이겨내며 버티면서 하루하루 살아간다. 게다가 프리지아 꽃처럼 신비스런 향기까지 멀리멀리 날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도 만나 운동하는 법도 배웠다. 집 안팎 살림뿐만 아니라 오만 가지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 하는 내가 일상의 스트레스를 벗어나는 힘든 일이다. 주어진 업무라며 위안을 하지만, 가끔은 사경을 헤매면서 참으로 허무한 삶을 체험한다. 고맙게도 다시 살아나 나는 집 마당에 만든 법당을 찾아 그곳에 모셔둔 가족을 바라보며 합장하며 안부 인사를 나눈다. 달포쯤, 프리지아가 꽃망울을 조랑조랑 맺고 키 자랑을 하더니 지금은 노란 봉오리들이 우아

<p><b>1. 센터빌 타운</b>    SOLD \$650,000</p> <p>방3, 화2.5, 차고1 RT 28, 66 교통편리, 전부 업그레이드</p>	<p><b>4. 스티어링 타운</b>    SOLD \$645,000</p> <p>2014년, 방3, 화2.5, 차고2, RT 50/606, Dulles Airport, RT28</p>	<p><b>7. 애쉬번 뉴타운 55+</b>    SOLD \$790,000</p> <p>방3, 화3.5, 차고2, Elevator</p>	<p><b>황계실 571-239-6054</b></p> <p><b>고객만족 18년!</b>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p> <p><b>매매 / 리스 전문</b> 주택·건물·오피스·창고·상가</p> <p><b>부동산전문 브로커</b> <b>GSHwang Realty</b> 🏠</p> 
<p><b>2. 애쉬번 타운</b>    SOLD \$660,000</p> <p>방4, 화3.5, 차고2, 최고 학군, RT 267/7, 밀리스 공항, 전부 리모델링, 새집 같음</p>	<p><b>5. 게인스빌 글프 싱글</b>    SOLD \$1,060,000</p> <p>게인스빌 레이크 메나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p>	<p><b>8.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하이마켓 싱글</b>    \$1,699,000</p> <p>SOLD / CASH</p> <p>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선통, 고급 조경, 트레이 천장, 스파 욕실, 드레스룸, 인로우 스위트, 미디어룸, 게임룸, 바 포함, 최신 HVAC, 정수 시스템</p>	
<p><b>3. 맥클린 콘도</b>    SOLD \$389,000</p> <p>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p>	<p><b>6. 빌더 새집 구매 확실하게 도와드립니다</b></p> <p>Sold</p> <p>1. Haymarket 55+ Villa \$670,000 방3, 화3.5 차고 2</p> <p>2. 매나사스 2025 새집 \$670,000 방4, 화3.5, 2400sqft, 차고2</p> <p>3. Bristow 55+ single \$750,000 방4, 화3.5 차고 2</p>	<p><b>9. 알디 싱글</b>    SOLD \$869,000</p> <p>2004년, 방4, 화2.5, 차고2, 전체마루, 국컨디션, New Trex deck, New paint, New roof, John Champe High School</p>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이구 한방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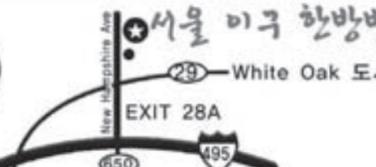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 임상경력 50년
- \* 각종 보험 취급
- \* VA, MD, DC 면허 소지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크레딧 카드 환영  
TV Travel Channel  
서울이구한방병원 방영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우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 건강마을

HealthTown

애넌데일 **703-354-1515**  
 2층 쇼룸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 봄맞이 특별 SALE

##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튬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어머님들의 필수 건강식품**

리튬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 광동 공진단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供辰丹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선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산삼 배양근 녹용

**대박 SALE \$48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고급, 광동의 기술과 철향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 위건강엔 마스크

위장 건강을 위한 필수품



meditree

# 레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어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콜라겐 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100% 유기농



면역강화에 최고!

#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폴리스 항병 공파



**당케어골드**

식후 당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정받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가장성 뇌기능 장애 및  
민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말초 혈액순환/우울감  
기억력감퇴/집중력장애  
두통/어지러움 귀울림



농협농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순도 100% 천연 황생제

# 허니웨이 고품질 프로폴리스

3+1 스페셜

1oz \$45  
4oz \$125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프로폴리스 알콜프리  
프로폴리스 캡슐 1,500mg



**세종 송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만성기침과 가래, 만성기관지염, 기관지염, 기관지 노화로 인한 가래와 기침, 아침에 가래가 심하다, 만성기관지염과 천식으로 숨쉬기 힘들다.



머리 혈액 순환 건강

#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융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융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각종 음식의 풍미 강화, 잇몸 건강



**홍환시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뼈,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299.99**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시름하지 않는 맛 좋은 천연 식초

요요없이 확실한 체중 감량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당뇨, 고혈압, 요실금, 근육, 낙상



**클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1알에 클루타치온 387mg 함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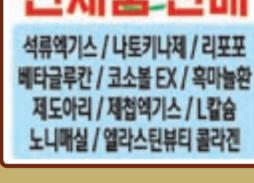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백하게~  
엘라스틴으로  
찰랑하게~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액기스 / 나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놀한  
제도아리 / 재첩액기스 / L칼슘  
노니매실 / 엘라스틴뷰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각종 치주 질환,  
치주염 예방 탁월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TALK 카카오톡으로 빠른상담  
탑트래블USA 실시간상담! 번역 및 공증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 시판권

33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민넷보다 저렴한 **최저가 한국항공권**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AIR PREMIA

유심칩 판매 한국 방문시 로밍 걱정 끝! 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채용 공고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센터빌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 info@toptravelusa.com  
문의 703 543 2322

**동부투어**

**미동부&캐나다**  
나이아가라/토론토/몬트리올  
퀘벡/플라즈버그/뉴욕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5박 6일 \$1350

**뉴욕&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스카이론타워 스페셜 특식(음식)  
2박 3일 \$650

**뉴욕&천섬&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 폭포 옆 Hotel 숙박  
3박 4일 \$899

**뉴욕** **탑여행사 당일관광**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1박 2일 \$399  
루레이 티켓만 판매 \$25

당일관광 / 소수인원 출발가능

**윈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세계의 보물창고 **서유럽**을 가다

런던-파리-스트라스부르-루체른-인터라켄(웅프라우)-밀라노-베니스  
피렌체-로마-나폴리-폼페이-소렌토르-포지타노-아말피

4/22~5/2 | 10박11일 | \$3,590+항공

**체리 브로섬 런치 크루즈**

3/30, 4/3 \$199

**서부투어**

**서부 완전일주**  
탑여행사의 자랑!!  
서부 주요 도시와  
4대 캐년까지 알찬 여행  
8박 9일 \$154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요세미티·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알래스카** 6박 7일 \$1640+항공

**엘로스톤** 3박 4일 \$950+항공

**코스타리카 연합** 5박 6일 \$1300+항공

**마운틴 러쉬모어·크레이지호스**  
3박 4일 \$1040+항공 (5/22, 7/3, 9/4)

**스페인 & 포르투갈**

4/28~5/8 | 10박11일  
10/6~10/16  
\$3,590+항공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유럽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

4/29~5/6 | 7박 8일  
9/29~10/6  
\$2,990+항공

**동유럽 & 발칸 크로아티아**

4/29~5/12 | 13박 14일  
9/29~10/12  
\$4,590+항공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5/5~5/15 | 10박 11일  
9/23~10/3  
\$3,190+항공

**북유럽 4개국**

6/8~6/18 | 10박 11일  
\$4,990+항공

**캐나다 록키** **독립기념일 특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면적의  
신의 축복을 받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캐나다!!

7/1~7/6 | 5박 6일  
\$2,190(항공포함)

**4월의 선물**

탑여행사가 드리는 2가지 특별한 혜택

1 대한항공 항공권 5% 할인 판매

2 한국여행·항공권 또는 유럽 패키지 구매시 USIM / eSIM (30 Days) 무료 증정!

- 유럽 패키지(윈더풀 투어) 구매시 데이터 10GB eSIM 또는 무제한 통화 USIM
- 한국여행, 항공권 구매시 데이터 10GB eSIM 또는 데이터 11GB+무제한 통화 USIM (에어프리미어 구매 고객께도 드립니다)

※ 4월말까지 구매자에 한함.  
Cell phone이 unlock된신분에 한합니다.

인생 바킷리스트 **크루즈**

**2026년 가이드 인솔 상품**

-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8/21~8/28 | \$2190(항공권 포함, 인사이트) **미감**  
8/28~9/04 | \$2190(항공권 포함, 인사이트) **미감일박**
- 아이슬랜드 & 스코틀랜드 & 노르웨이 9박 10일**  
8/1~8/10 | \$3650+항공(LHR IN/KEF OUT)  
일정: England-London(Southampton), Scotland-Kirkwall, Norway-Bergen, Iceland-Akureyri, Isafjordur, Iceland-Reykjavik, Iceland City Tour, Blue Lagoon 온천
- 캐나다 & 뉴잉글랜드 9박 10일**  
10/8~10/17 | \$1380(인사이트), \$1680(오션뷰)
- 지중해 크루즈 11박 12일**  
10/30~11/10 | \$2900(+항공, 인사이트), \$3300(+항공, 오션뷰)  
일정: 스페인 바르셀로나(1박 2일 관광 포함) 말타버데라, 스키스 차나, 홀림피아, 아테리 사실리, 나폴리, 로마 등

**2027년 가이드 인솔 상품**

- 남부 카리브해 7박 8일**  
1/17~1/24 | \$1399+항공  
일정: San Juan Puerto Rico, St. Johns, Port de France, Kingston, St. Vincent, St. Kitts, San Juan
- 알래스카 크루즈 7박 8일**  
8/13~8/20 | \$2190(항공권 포함, 인사이트)
- 캐나다 & 뉴잉글랜드 9박 10일**  
9/23~10/2 | \$1390(인사이트)
- 지중해 크루즈 11박 12일**  
11/1~11/12 | \$2900(+항공, 인사이트), \$3300(+항공, 오션뷰)  
일정: 그리스 아테네, 산토리니, 터키 에베소, 미코노스, 몰타 발레타 바르셀로나

경험 많고 친절함 전문 에이전트 **케이이**가 도와드립니다.  
크루즈는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현지 도착항구와 관광 등 모든 절차를 잘 아는 전문 가이드와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탑여행사 전문 가이드에게 맡기세요.

**탑여행사가 모든 크루즈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립니다**



2026 **JOSHUA** **여호수아** **+아이슈마켓 당일**

3/26, 4/9, 4/30, 5/21 \$199  
6/4, 6/25, 7/16, 8/6 \*\*단체 문의 환영

전 세계 군악대가 한자리에!  
**노퍽 세계 군악 페스티벌**

대한민국 군악대와 의장대 참가  
4/19(일) 당일 **\$219**

**한국관광공사 고품격 & 투게더 고국일주**

10박 11일 (제주포함) \$2990+항공  
8박 9일 (내륙관광) \$2490+항공

1차 04/14~04/24 **여행지**  
2차 09/15~09/25 인천/부여/군산/전주  
3차 10/13~10/23 하동/진주/거제/부산  
4차 10/20~10/30 울산/경주/경동진/강릉  
속초/김포/제주

전국 9박 10일 \$2199+항공  
(서울 조인, 한국 일요일 출발)

1차 03/29~04/07 **여행지**  
2차 05/10~05/19 서울/여수/부산  
3차 06/21~06/30 경주(유네스코)/강릉  
4차 11/01~11/10 평창/서울/제주

**TOGETHER in KOREA**

한국어 투어(2인 이상 출발)

서울권 3박 4일 \$849 일출발  
서울권·제주 5박 6일 \$1349 일출발  
제주 (부영호텔) 2박 3일 \$549 수출발  
동해안 4박 5일 \$1099 수출발  
제주·동해안 6박 7일 \$1599 수출발

전국 9박 10일 \$2299 일출발  
내륙 6박 7일 \$1599 일출발

영어 투어(2인 이상 출발)  
내륙 6박 7일 \$1970 토요일  
서해안 3박 4일 \$1200 토요일  
서울권 3박 4일 \$1516 토요일  
제주권 3박 4일 \$450 매일출발

**동남아 연합투어**

- 3박 5일 방콕/파타야 \$490+항공
- 3박 5일 하노이/하롱베이 \$690+항공
- 3박 5일 다낭 \$450+항공
- 3박 4일 나트랑/달랏 \$450+항공
- 3박 4일 대만 \$690+항공
- 3박 5일 싱가포르 \$850+항공
- 3박 4일 북경 \$740+항공
- 3박 5일 장가계 \$740+항공
- 4박 6일 북경/장가계 \$1740+항공
- 9박 10일 중국일주 \$2940+항공

**TMCI 고국건강검진**

한양대학교 (기본검진) 남/여 \$520  
서울삼성병원 (Primary) 남 \$1340/여 \$1660  
서울대병원 (기본검진) 남 \$990/여 \$1110  
세브란스 (미국국적) 남 \$720/여 \$770

현대아산병원/경희대병원  
가천대길병원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제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예초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 교육 & 연예/문화 Sports

**빙·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LENNOX,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JoongAng Ilbo

Tuesday, March 17, 2026

연방과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추방재판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95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5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303-4556 / f. (703)303-0988  
f. (703)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 난이도 다른 과목 선택이 대입의 '첫 단추'

### 9학년 계획과 전략

미국 고교에 진학하는 9학년은 흔히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고교 첫 해가 이미 대입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한다. 대학은 고교 4년 동안의 학업 기록을 평가하며, 이 기록은 9학년에서 시작된다. 칼리지 보드와 공통지원서 자료에 따르면, 상위 대학 합격생의 80% 이상이 9학년에서 AP(Honors)나 AP 과목을 시작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수학·외국어·과학 등 주요 과목의 트랙이 9학년에 결정되는 만큼, 고교 첫 해의 시간표는 곧 대학 지원서의 첫 페이지가 된다.

대학은 9~12학년 전체 코스 난이도를 고려한다. 예를 들어, 하버드는 '학업 도전성(challenge)'을 강조하며, 9학년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을 선호한다. 실제 9학년 선택이 수학·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을 꿈꾼다면, 9학년부터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만 속도보다는 균형을 맞춰야 한다. 과부하를 피해야 한다. 1~2개 아닌 과목으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 ▶9학년 수강 설계시 흔한 실수
- ① 과목 난이도를 너무 낮게 선택: 고교 적응을 이유로 모든 과목을 레귤러(Regular)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학은 학생이 도전적인 과목을 선택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영어·수학·사회 중 최소 1~2과목은 아니(Honor)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② 수학 트랙을 가볍게 생각: 9학년 수학은 이후 과정의 속도를 결정한다. 수학을 한 단계 늦게 시작하면 12학년에 칼큘러스(미적분, Calculus)를 듣기



9학년 과목 선택은 AP 과목 수 늘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전략적인 선택이 매우 필요하다. [제미니이 생성]

수학 트랙	일반 트랙 (Regular)	패스트 트랙 (Accelerated)
9학년	Geometry	Algebra 2
10학년	Algebra 2	Pre-Calculus
11학년	Pre-Calculus	AP Calculus AB
12학년	AP Calculus AB	AP Calculus BC

UC vs 아이비리그	UC 합격생 평균	아이비리그 합격생 평균
영어	4년	4년
수학	4년 (Calculus 포함)	4년 (최고 난이도 필수)
과학	3~4년	4년 (Bio/Chem/Phys 모두)
외국어	3년 이상	4년 권장
AP 개수	평균 4~7개	평균 7~10개

전공별 핵심 과목	핵심 과목	권장 수강 전략
STEM	수학·과학	Calculus, AP Physics, AP Chemistry
인문	영어·사회	AP English, AP History
비즈니스	수학·경제	Statistics, Economics
예술	미술·음악	Portfolio 중심

어렵다. 특히 STEM 전공 희망자에게는 치명적이다.

③ 외국어를 늦게 시작: 명문 대학들은 외국어 3~4년 이수를 선호한다. 9학년에 시작해야 12학년까지 공백 없이 이어진다. UC는 최소 2년을 요구하지만 막상 합격생 평균은 3년 이상이다.

④ 쉬운 선택 과목만 골라: 미술·음악·컴퓨터 등 관심 분야 과목을 균형 있게 선택하는 것이 좋다. 2026년에는 특히 AI·컴퓨터 과학 과목의 중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홀리스틱 리뷰(종합평가)에서 약점이 된다.

⑤ 전공과 관련 없는 과목을 선택: STEM 전공을 희망한다면 수학·과학을 강화해야 한다. 공대 지망생이 수학·과학은 쉬운 것을 듣고 예체능 과목만 심화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 부족으로 평가된다. 비즈니스 전공 희망자는 경제나 통계 아닌 수업을 고려해야 한다.

▶수학 트랙 12학년의 종착역을 결정하라  
수학은 가장 위계적인 과목이다. 9학년 시작점이 늦으면 12학년 때 최고 난이도인 칼큘러스 이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명문대는 7학년 때 얼마나 빨리 시작했느냐 보다 12학년때 최종적으로 어느 난이도까지 도달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수학 트랙 표 참조>

▶Honors와 Regular 선택  
NACAC(전미대학입학상담협회) 2025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의 90%가 과목 선택에 도전적인 학생인 '코스 리고어(Course Rigor)'를 최우선 평가 항목으로 꼽는다. 아니 수업은 GPA에 0.5~1점 가중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도한 선택은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캘리포니아 공립고 평균 GPA계산에서 아너가 유리하지만 아너의 B보다는 레귤러의 A가 좋다. 지나친 도전보다 전략적 균형이 중요하다. 장병희 객원기자  
▶2년 '9학년 계획과 전략'으로 계속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서울아산병원 출신  
전문의 진료  
**나움 메디컬 센터**  
12600 Fair Lakes Circle, #100  
Fairfax, VA 22033 / naumhealth.org  
**703-994-4511**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내 집보다 편안한  
**아리랑 건강 복지센터**  
"사랑과 정, 효를  
다하여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443.691.7968**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 재정보조, 한번 신청하면 끝?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자녀가 대학 진학 시 대학의 재정 보조 신청서를 매년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매년 가정의 수입과 자산이 계속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대학은 반드시 Need Based로 재정 지원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매년 10월 1일이면 시작되는 신청 기간 중에 자녀와 부모 수입 및 자산, 그리고 재정 상태를 기준해 재정 보조 신청서를 제출하는데, 가정마다 매년 재정 형편의 변동은 이를 기준해서 대학별로 재정 보조 지원 수위를 정한다. 가끔 학부모들이 재정 보조 신청은 한번 제출되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첫째 지원받은 재정 보조금이 매년 같은 수준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문제는 재정 보조금의 평가가 자녀가 등록하는 해당 연도보다 2년 전의 수입과 현재의 자산 상황으로 평가는 이뤄지므로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서에 기재되는 수입과 자산 내용의 적용 시점이 언제인지, 이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절대로 재정 보조를 극대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재정 보조의 설계는 모든 것이 입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또한 자녀가 재정 보조 지원을 잘하는 대학에 진학해야만 가능하다. 개인적 편견과 의견에 의한 추측과 나름대로 해석은 절대로 삼가야 한다. 그 이유는 연방 정부가 규정한 재정 보조 공식에 의해 계산되는 수입과 자산 내용으로 준비와 설계가 이뤄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최근 어떤 중국 분을 상담한 적이 있

다. 주로 주식을 통해 자산을 수년간 늘려온 관계로 아무리 자세한 재정 보조 공식과 연방법에 대한 사실 내용을 전해도 모든 해석은 개인적 편견에 의한 주식밖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절대적으로 믿는 경우였다. 재정 보조를 최적화하기 위한 입증된 방법에 대해 입증해 해도 전혀 이해하려 노력도 하지 않고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으면서 대학의 재정 보조는 반드시 지원을 받고 싶은 것이다. 물론 대학에서 절대로 재정 보조를 잘 지원해 줄 리가 만무하다. 요즘 대학의 연간 총비용이 10만 달러를 육박하고 있다. 이 가정의 경우 자녀 2명이 동시에 사립대학을 진학하는데 매년 학자금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경우 연간 개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은 최소 20만 달러가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20만 달러를 지출하기 위해 세금 전 수익은 최소한 25만 달러는 있어야 현상 유지가 가능하다. 아무리 주식이 100만 달러가 넘는다 해도 연수익률을 25퍼센트 만들어야 고작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나 누가 매년 25퍼센트의 수익률을 창출해 개런티할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줄은 볼 보듯 뻔한 현실이 안타깝게 한다.

또한 많은 학부모들이 세금을 줄이고 수입을 적게 보이기 위해 IRA 혹은 은퇴를 위해 Roth IRA 및 직장의 401(k), TSP, 403(b) 등 자신의 봉급에서 최대한으로 불입하는 경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는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러한 불입금에 달려 있다. 그 이유는

불입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신의 컨트롤이 있다는 문제점이다. 이러한 선택 사항으로 인해 재정 보조에 있어서는 그 불입금을 자녀의 학자금 지원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정작 세금 혜택도 보고 은퇴연금도 적립하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가정들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려고 하는 데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페널티를 물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만약 연간 6천 달러를 불입하며 세금 공제를 하고 있다면, 그리고 해당 학부모의 세율이 20퍼센트라면 세금을 지불한 후에 남은 세후 금액이 대략 4천8백 달러만큼 재정 보조 시에 가정에서 우선 분담해야 할 SAI 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이는 차라리 이러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았던 세전 수익에 따른 SAI 금액이 더 적고 따라서 재정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는 의미이다.

401(k), 403(b), TSP와 같은 직장 내 연금 플랜들은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그 원금은 재정 보조 공식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플랜에 대한 Owner, 즉 주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회사 플랜 자체가 Owner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RA 등 개인 소유의 어카운트는 Brokerage Account일 경우에 재정 보조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재정 보조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401(k), 403(b), TSP와 같은 직장 내 연금 플랜들은 해당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 그 원금은 재정 보조 공식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플랜에 대한 Owner, 즉 주체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회사 플랜 자체가 Owner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IRA 등 개인 소유의 어카운트는 Brokerage Account일 경우에 재정 보조 계산의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한 심층 분석과 사전에 대비해야 하는 재정 보조 극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



양성희의 문장으로 읽는 책

## 영혼 없는 작가

아기였을 때 나는 멕시코 해먹 안에서 자고 있었다. 부모님이 이 해먹을 구해 왔는데, 낭만적이라서가 아니고 집이 너무 좁아 나를 위한 공간이 공중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방에는 벽마다 천장 끝까지 높이 쌓아놓은 칠천 권의 책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밤이면 책들은 나뭇잎이 서로 곱겹이 얽힌 채 자라난 나무들로 변했다. 트럭이 집 밖을 지나갈 때면 나의 멕시코 해먹은 그 숲에서 그네처럼 흔들렸다.



처음 접했을 때 작가는 “이렇게만 만년필을 보면서도 그게 실제 남자라고 느껴지고 애를 썼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말이다. 나는 만년필을 손에 쥐고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반복했다. 남자, 남자, 남자. 이 마법의 주문은 천천히 나에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주었다.”

이는 언어에 대한 비범한 통찰로 이어졌다. “모어에서는 생각이 단어에 너무 꼭 들러붙어 있어서 단어나

생각이나 자유롭게 훑힐 날아다닐 수가 없다. 외국어를 쓸 때는 스테이플러 심 제거기 같은 것을 갖게 된다. 이 제거기는 서로 바짝 붙어 있는 것과 단단히 묶여 있는 것을 모두 떼어놓는다.” “내 입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들은 내 감정과 딱 맞아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나는 모어에도 내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단어를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낮은 외국에서 살기 시작할 때까지 그것을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다. 가끔 나는 모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구역질이 났다. 그 사람들은 착각 준비해 적절 내뱉는 말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거나 느끼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문화칼럼니스트

### ▶1면 '9학년 계획과 전략'에서 계속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① 영어 또는 사회 과목: 아너 선택 ② 수학: 현재 실력에 맞는 수준 선택 ③ 과학: 학교 커리큘럼에 따라 선택

#### ▶외국어는 4년 채워야 할까

외국어는 학문적 준비도를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다. UC 공식 사이트 기준으로 최소 2년이 요구되지만, 하버드, 프린스턴 등 아이비리그는 4년을 ‘강력 추천’한다.

그래서 9학년에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2026년 입시 자료에서 상위 대학 합격생의 70%가 외국어를 4년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9학년 수학은 12학년 켈큘러스 목표로 AP갯수보다 과목의 균형 맞추기 중요 2026년부터 'AI윤리' 신규 개설도 화제

캘리포니아에서는 스페인어와 중국어가 가장 인기 있는 선택이다. 외국어는 단순 이수를 넘어 관련 문화 클럽 활동을 병행할 때 ‘글로벌 역량’으로 평가 받는다.

#### ▶UC vs 아이비리그 요구 수준 비교

UC나 아이비리그 대학의 요구 수준은 매우 비슷하다. 다만 크게 다른 것은 AP 수강 갯수가 많이 다르다. 두 유형의 대학 모두 강조하는 것은 단 하나, ‘학업의 도전성’이다. 단순히 많은

과목을 듣는 것보다, 가능한 범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UC vs 아이비리그 표 참조>

#### ▶일반 인문 vs STEM 전공 희망자

9학년에서 전공 방향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전공에 따라 중요 과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STEM 희망자는 켈큘러스와 AP피지스가 필수이고 일반 인문계 전공자는 AP잉글리시, AP히스토리 과목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2026년부터는 AI윤리 같은 신과

목이 추가됐다. <전공별 핵심과목 표 참조>

#### ▶학부모가 경계해야 할 실패

① '쉬운 GPA'의 함정: 모든 과목을 레귤러로 채워 4.0 만점을 받아도, 대학은 도전 정신 부족으로 판단해 불합격시킨다.

② 과유불급 AP: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많은 AP를 몰아 들으면 전체 GPA가 무너진다. AP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난이도와 성적이다.

③ 방향성 잃은 선택: 공대 지망생이 수학·과학은 쉬운 것을 듣고 예체능 과목만 심화하는 경우, 전공 적합성 결여로 평가된다. 희망 전공과의 연결성이 핵심이다.

#### ▶고교 첫 해의 의미

9학년은 대입 준비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시기다. 이때 선택한 과목이 수학 트랙, 외국어 이수 기간, AP 과목 선택에 영향을 준다. 고등학교 4년은 길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간다. 학부모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9학년은 단순히 학교에 적응하는 시기가 아니라, 향후 학업 방향을 설계하는 시기다.

지역 교육구나 학교의 카운슬러 상담을 적극 활용하고, 칼리지 보드 등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자녀에게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많이 듣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듣는 것이다.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이후 4년의 학업 흐름을 좌우한다.

장병희 객원기자

# 부동산 재테크



운명을 바꾸는 부동산 투자!  
임대주택 관리의 20년 전문!

부동산의 모든 상담  
앰플러스 부동산, 비키리 브로커

Tel: 703-231-5572

메릴랜드, D.C. 임대 주택 면허,  
주택감사 대행해 드립니다.  
임대주택 관리, 귀중한 재산을 보호해 드립니다.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20년 연속 다이아몬드클럽 멤버  
메릴랜드 주택 남성분 검사 인스펙터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추방재판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상담 및 신분 변경

Joy Law Group, PLLC.

www.joylawgroup.com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 AI가 뺏은 '축적의 시간' ... 주니어는 미숙련자로 남겨질 위기



때와 시간으로  
대변되던 인간  
의 노동 가치가  
데이터와 연산 속도 앞에서 재단되고 있  
다. 인공지능(AI) 보급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거의 전 업종에서 그렇다.

모델과 성우가 꼭 등장하던 광고제  
작업을 보자. 한 AI 광고 제작사에 이메일로  
견적을 문의하자 30분 만에 답신이 왔다.  
AI 모델과 성우가 출연하는 10초 영상이  
120만원, 30초 영상은 360만원. 배경·  
자막·효과음까지 포함된 '올인원' 가격이다.  
한 금융사 홍보 담당 임원은 "유명 모델을  
쓰는 실사 영상은 10초에 수억원이 들기도  
하고 한 달 이상이 걸리지만, AI는 1주일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모델은 물론 촬영 스태프,  
메이크업 아티스트 등 관련 일자리가 위협  
받는 배경이다.

회계·세무·법률 등 이른바 '사짜 직업'  
도 예외는 아니다. 과거 저연차 변호사들은  
밤새워 판례를 찾으며 일을 배웠지만, 이젠  
AI가 그 일을 대신한다. 대형 로펌의 한 고문은  
"비용을 들여 초짜를 키울 유인이 사라졌다"고  
전했다. 카를 마르크스가 환생한다면 죽은  
노동이 산 노동을 대체해 대량실업을 일으킨다  
며 펄쩍 뛰었을 법하다.

산업 현장의 변화가 단순히 고용 감소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일거리는 남아 있지만  
입구가 사라지고, 직업은 존재하지만 초보자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가 된다. 그 결과 미래의  
전문가 코스로 이끌 '경험의 사다리'가  
치워지고 있는 게 뼈아프다.

### AI, 3년간 청년 일자리 20만개 뺏어

이는 산업 구조 자체의 변화다. 숙련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 사소하고 반복적인  
초급 업무를 통해 축적된 경험이 숙련을  
만들고, 그 토대 위에 전문가라는 꽃이  
피어난다. 그런데 AI는 바로 이 중간 단계의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 기업은  
사람을 교육하며 키우기보다 완성된 인력을  
외부에서 찾는다. 내부의 성장 경로는  
좁아진다.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은  
허드렛일을 하는 초보자와 소수의  
고숙련자만 남고, 산업을 지탱하던  
중간 허리가 비게 된다. 산업은  
상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인력도  
재생산한다. 내부에서 숙련이 축적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는  
전문가 풀이 부족해진다. 그때 대처하기엔  
이미 늦다.

과거 광고 제작 현장의 막내 스태프는  
밤을 새워 소품을 준비하고, 무명 모델은  
추운 날씨에도 카메라 앞에서 수

AI, 지시사항 수초면 딱딱 만들어  
신입 학습과정 고비용·비효율 치부

AI는 결과만 줄 뿐 노하우 안 쥐  
경험 쌓으며 성장할 통로 끊긴 셈

산업의 중간허리 비게 되는 부작용  
노사 모두 '공존의 비용' 부담해야

백 번 포즈를 취하며 현장의 공기를  
익혔다. 신입 회계사·세무사들도 산디미  
같은 전표와 씨름하며 숫자의 흐름을  
체득했다. 미래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수련 과정이었다.  
이런 기초적인 경험의 장을 AI가 장악  
해버렸다. AI는 결과를 내놓을 뿐, 그  
이르는 과정의 노하우는 공유하지 않는  
다. 현장에서 부대끼며 체득할 수 있는  
암묵지(暗黙知, 경험과 맥락을 내포한  
비공식적 노하우나 지식)의 전승 통로가  
끊긴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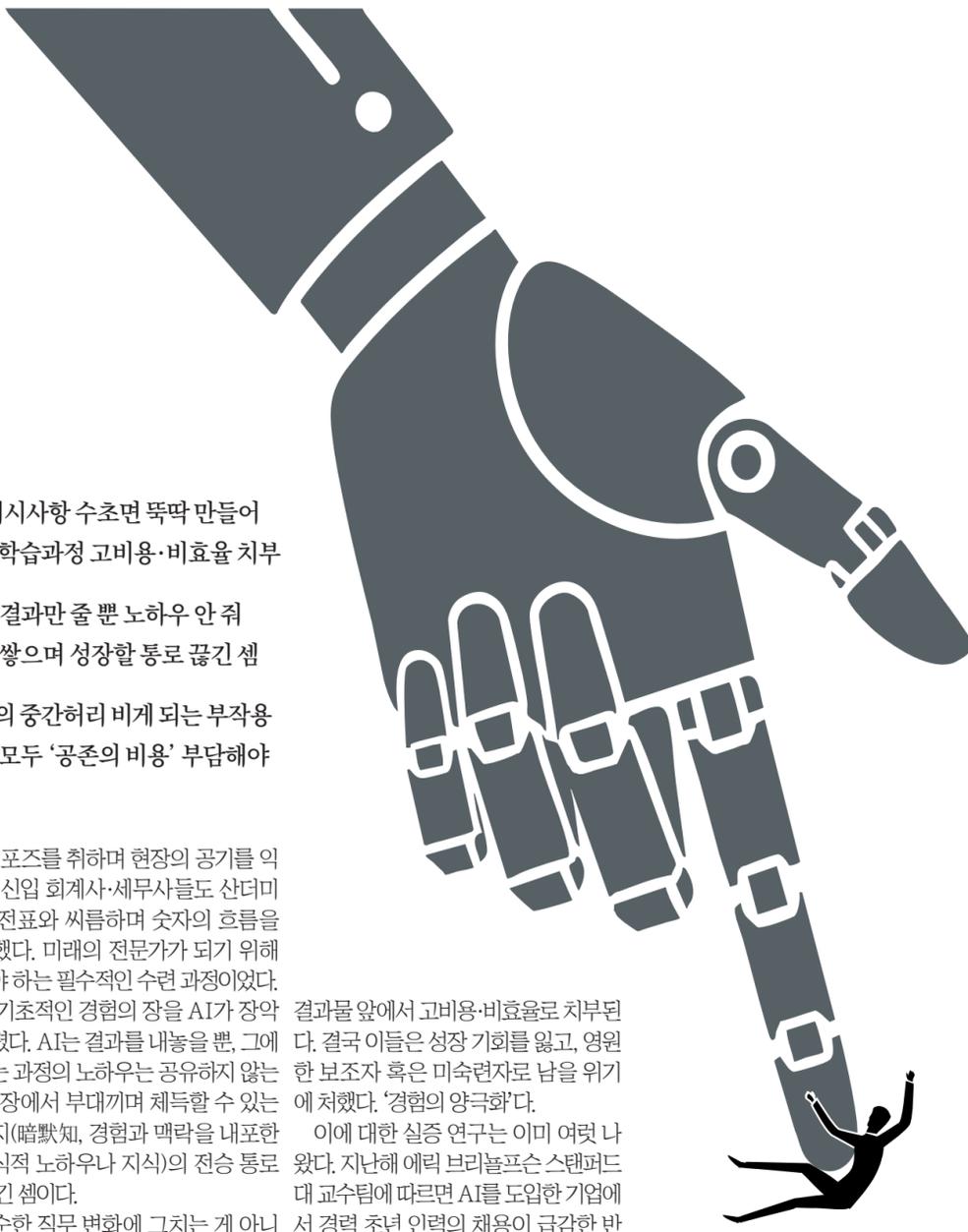
단순한 직무 변화에 그치는 게 아니다.  
신입이 경험을 통해 숙련으로 이동하는  
경로가 막히면 노동시장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력을 흡수하지 못한다. 과거에는  
기업이 일종의 훈련 비용을 감당하며  
낮은 생산성의 초급 인력을 채용했다.  
그러나 AI가 그 구간을 제거하자  
기업들은 처음부터 생산성을 낼 수 있는  
경력자를 선호한다. 그 결과 AI의 충격은  
청년층의 진입 실패, 즉 구조적 고용 불안의  
형태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아무리 AI가 완벽해도 현장에서 뿔  
어내는 베테랑 모델의 감정을 흉내 내기  
어렵다. 온갖 시행착오를 토대로 복잡한  
경영 전략을 제안하거나 법적·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고도의 의사결정도  
대체하기 힘들다. 그에 비해 주니어의  
학습 과정은 AI가 수초 만에 내놓는

결과물 앞에서 고비용·비효율로 치부된다.  
결국 이들은 성장 기회를 잃고, 영원한  
보조자 혹은 미숙련자로 남을 위기에  
처했다. '경험의 양극화'다.

이에 대한 실증 연구는 이미 여럿 나왔다.  
지난해 에릭 브리놀프슨 스탠퍼드대 교수팀에  
따르면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경력 초년  
인력의 채용이 급감한 반면, 고경력자의  
고용은 오히려 늘었다. 하버드대  
경제학과 세예드 호세이니와 가이 리히팅거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경력에 따른 AI의 차별적 영향은 한국에서도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10월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 수는 21만1000개 줄었는데, 이 가운데  
20만8000개가 AI 고노출 업종이었다.  
챗GPT 출시 이후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관리), 출판, 전문 서비스, 정보 서비스  
부문의 청년고용은 각각 11.2%·20.4%·8.8%·  
23.8% 감소했다. 반면에 50대를 포함한  
핵심 장기 경력자들은 종전의 고용 증가세를  
유지했다. AI는 정형화된 주니어의 업무를  
쉽게 대체한 반면, 경력에 기반한 암



적 자분을 축적할 길이 막힌다"고 말했다.  
세대 간 지식 전수가 끊기면 성장 동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숙련된 전문가는 수많은 시행착오의  
대가를 지불하고 걸러지는 것이다. 당장은  
AI가 그 비용을 0에 수렴케 만든 듯  
보이지만, 실체론 청년 실업과 미래 인재  
상실이라는 더 큰 비용 청구서가 날아올지  
모른다.

그럼 지금 개별 기업의 합리적 선택은  
훗날 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구성의  
오류'일까. 그렇다고 효율과 이익을 추구하  
는 기업에 무작정 주니어 인력을 키우라고  
주문하기는 어렵다. 그럴 여유를 지닌 기  
업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용과  
효율이라는 딜레마 구도에서 어떤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면  
모두들 정부가 나서길 바라곤 한다. 우리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정부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만능은 아니다. 이번엔 외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정부의 혁신 역  
량이 영 미더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한국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다. 미국·  
유럽에서 논의되는 정부의 AI 과세 방  
안을 보자. 고용이나 임금 감소를 보  
전하기 위해 AI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에  
과세하자는 발상이다. 케빈 오닐 록펠러  
재단 총괄 매니징디렉터는 "AI 과세는  
실업보험과 재교육을 강화하거나 더  
광범위한 AI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이중과세  
일뿐 아니라 혁신에 페널티를 준다는  
면에서 시대 흐름에 배치된다. 게다가  
거둬들인 돈으로 정부가 뭘 할지도 알  
수 없다. 대체로 정부는 혁신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 정부의 대책 역시 과거의 문법을  
따른다. 일자리가 있는데 기술이 부족  
한 청년의 미스매치를 해결해 주는 게  
중심이다. 정작 청년들엔 취업의 입구  
조차 잘 안 보인다.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상수화돼 있다. 강력한 해고  
규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최저임금  
제 탓에 기업은 미경력 신입을 '고비용  
위험자산'으로 간주하기 쉽다. 교육  
비용과 낮은 생산성을 반영해 임금을  
낮게 정하거나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지낸 김덕호  
성공관대 겸임교수의 진단은 비단 AI에  
국한되지 않는다.

목지나 대인관계가 필요한 경력자 업무엔  
보완적으로 작동했다는 뜻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다소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산업 생태계의  
허리를 담당할 중견 전문가가  
증발해버릴 수 있다는 점이 그렇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경력 사다리의 첫 칸이  
사라지면 후속 세대는 인

##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1961년생 메디케어 가입 상담 및 신청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탐학자금 에듀피아



# Independent Student 란?



줄리 김  
탐에듀피아 대표

**Q** 펍사 신청서 Independent Student 로 신청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 인가요?

**A** 대학 학자금 관련 상담 을 하다 보면 “우리 아이 는 Independent Student 자격으로 Financial Aid를 신청 할 수 없나요?” 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된다.

학생의 조건을 확인 해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Dependent Student과 Independent Student 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경우가 Financial Aid 신청에 더 유리 할까? Dependent Student과 Independent Student의 차이점에 대해 먼저 알아 보자. Dependent Student은 쉽게 말해 부모의 지원을 받는 학생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재정보조를 신청하는 학생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 부모의 수입이나 재산 정도가 재정 보조 신청에 반영된다. 만약 학생의 수입과 재산

이 있다면 이 또한 반영된다. 부모와 학생의 수입과 재산 내역이 모두 반영된다는 의미이다. 반대로 Independent Student은 경제적으로 독립된 것으로 판정한 경우 이므로 부모의 기여도가 제외된 상태에서 재정보조를 신청하게 된다. 즉, 부모의 수입 이나 재산 내역이 반영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재정 보조를 받는데 훨씬 유리하다.

**Q** Independent Student 으로서 펍사를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를 받기 위해 누구나 FAFSA(Free Application For Federal Student Aid)를 신청해야 한다. 우선은 일정 나이가 되어야 Independent 자격이 주어진다. 재정보조를 수여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4세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보통 18세에 대학에 입학한다고

볼 때 나이로 Independent 자격을 갖게 되는 경우가 별로 흔하지 않다고 하겠다. 그리고 배우자 외에 법적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 다시말해 태어날 예정인 아이도 포함한 친자가 있거나 양자 또는 법적 보호자와 함께 있는 아이가 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본인이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생계비의 50% 이상을 책임지면 이에 해당될 수 있다. 결혼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만약 결혼할 예정 이라면 대학 학자금 재정 보조 신청 전에 결혼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면 학생과 배우자의 재정 상

태로 신청할 수 있다. 부모 모두가 사망해서 법원으로부터 피보호자로 보호를 받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그리고 현역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미군 출신의 재향군인인 경우 이에 해당된다. 현역 근무를 하고 불명에 제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학생 본인 또는 가족 전체가 Homeless 이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에도 Independent 조건에 해당된다.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수입이나 재산 내역에는 관계없이 학생 본인이 Independent 조건으로 재정 보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단, Medical School이나 Law School인 경우는 부모님의 인컴이나 재산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조건에 하나라도 충족이 된다면 Independent Student 으로서 Financial Aid를 신청 할 수 있

게 된다. 이 경우 부모님의 수입이나 재산 내역이 반영되지 않고 오직 학생의 수입이나 재산 내역만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의 수입이나 재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Dependent Student 보다 대학 학자금 재정보조 신청시 더 유리 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한 학생은 FAFSA 신청시 본인은 분명한 Dependent Student 인데 부모를 비롯한 모든 가족을 자신이 부양 하는 Independent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반대의 경우 본인은 분명 Independent Student 임에도 불구하고 Dependent 자격으로 신청해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학생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 해당하는지를 꼼꼼히 확인한 후 재정 보조를 신청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문의) 703-576-7803,  
Email: topedupia@gmail.com

에듀 포스팅

수 변 원장 /보스톤 에듀케이션

고등학생들에게 이 시기는 다음 학년에 수강할 과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다. 많은 학생이 GPA, 즉 석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가능한 한 많은 AP와 Honor 과목을 신청하려고 한다.

학부모 역시 석차에 대해 민감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전교 1등이 전교 5등보다 낮은 대학에 합격한 사례”를 언급하며 석차의 의미와 영향에 대해 질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질문은 다음 학년 수업을 선택하는 시기에 더욱 자주 나오곤 한다.

미국 대학 입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같은 학교 내 석차(class rank)가 학생의 학업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여겨졌다.

석차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학업적 위치와 아카데미 우수성을 비교적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준이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비교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학 입시 환경이 변화하면서 석차의 중요성은 과거보다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일부 사립학교에

서는 과도한 경쟁을 줄이고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석차를 공개하지 않거나 아예 석차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대학 입학 과정에서도 석차는 예전처럼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라기보다 여러 요소 가운데 하나로 참고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11학년에 AP Calculus BC를 듣고 12학년에 Multivariable Calculus를 수강한다고 가정해 보자. 반면 B라는 학생은 11학년에 AP Calculus AB, 12학년에 AP Calculus BC를 수강한다고 가정하면, B 학생은 AP 과목 수가 하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GPA가 A 학생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A 학생은 AP 과목 수

는 하나 적지만, 대신 12학년에 Multivariable Calculus라는 더 높은 수준의 수학 과목을 수강한다는 점에서 B 학생보다 수업 난이도 측면에서 더 도전적인 학업 난이도를 선택했다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대학은 학생을 단순히 성적이나 SAT/ACT/AP 같은 시험 점수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학생이 얼마나 난이도 있는 수업(course rigor)을 들었는지가 중요하다.

참고로 학교 석차를 ‘고려하지 않는’ 대학과, ‘고려하는’ 대학, 그리고 ‘중요시’하거나 ‘매우 중요시’하는 대학들이 있다. 자녀가 지원하고 싶은 대학이 석차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미리 파악해 두면 수강 계획과 지원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된다.

▶석차를 고려하지 않는 대학들  
New York University, American University,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석차를 고려하는 대학들  
Bowdoin College, Emory College, Harvard University, Johns Hopkins University.

▶석차를 중요시하는 대학들  
Cornell University, Duke University, Amherst College, Boston College, Boston University.

▶석차를 매우 중요시하는 대학들  
Brown University, Carnegie Mellon University, Colgate University, Columbia University, Dartmouth, Georgetown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Northwestern

## 석차보다 과목 난이도 등 중요 종합평가 시대 잠재력 어필해야

University,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Ohio State University, Yale University, University of Pennsylvania(UPenn).

간혹 명문 대학에서 석차를 고려한다고 언급되지만, 하버드 대학처럼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다소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하버드의 내부 데이터와 공통 데이터 세트(Common Data Set)를 보면 GPA와 학업 난이도가 주요 평가 기준으로 나타난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대학은 종합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학생을 단순히 성적이나 시험 점수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수강한 과목의 난이도, SAT/ACT, AP, 에세이, 추천서, 과외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따라서 석차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 어떤 성과물을 달성할 것인지, 리더십과 창의성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 또한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 Park & Woo, P.C.

WWW.PARKWOOLAW.COM

**박상근 변호사**

- 서울 법대, 대학원 졸업
- George Washington 법대 법학 석사
- Fairfax County 인권위원회 부의장 (전)
- 버지니아 주의회 이민 난민 정책위원 (전)
- 북미주 CBMC 총연합회 회장 (전)
- VA, MD, DC 변호사 자격

**믿음과 전문성, 당신 곁에 있는 법률 파트너**

박&우 합동법률사무소는 고객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5년 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께 합니다. 법률 문제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가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상담, 박&우와 함께 하세요!**

민사, 상사, 형사, 회사법, 부동산, 상속, 유언, 비자(F, H, E, L, R), 이민 신청, NIW, 시민권, 추방 재판 등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우시영 변호사**

- Georgetown 법대 법학 석사
-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이민변호사협회 정회원
- 주요 일간지 이민법률 상담 변호사
- 아태법률구조센터(APALRC) 법률 통역 (전)
- VA, NY 변호사 자격

# 박&우 합동법률 사무소

## Park & Woo, P.C. (703) 941-7395

4308 Evergreen Lane, Suite G, Annandale, VA 22003 | E-mail: info@parkwoolaw.com



# 김우기

##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CORE Integrative Care & Wellness

- 센터빌
- 찬틀리
- 헌 돈



한국과 미국에서의 통증·재활 분야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실력을 갖춘 전문가가  
**양·한방 통합 치료**로 집중 케어 해드립니다!

### 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 여행자보험

### 교통사고

- 메디케이드
- 캐쉬플랜

### 진료내용

####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 치료  
보봐스 치료

####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 치료  
한방 침 치료, 전기 치료  
관절/근막이완 치료

###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
- 뇌졸중/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University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Licensed Acupuncturist

**원장 김우기 DPT, LAC**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김우기

통증·한방·재활 물리치료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받습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 돌아온 양현준... 대표팀에 철밥통 없다

스코틀랜드 셀틱FC에서 활약 중인 '전 천후 왕어' 양현준(24)이 2026 북중미 월드컵으로 향하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홍명보(57) 한국축구대표팀 감독은 16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열린 '3월 유럽 원정 A매치 2연전'에 나선 27명 명단을 발표하면서, 양현준을 포함 시켰다.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28일 오후 11시 영국 런던 근교의 밀턴 케인스에서 코트디부아르, 4월 1일 오전 3시 45분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와 평가전을 치른다.

오는 6월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5월 중순경 최종 엔트리가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번 3월 A매치는 대표팀 발탁 여부를 결정할 마지막 모의고사다. 홍 감독은 본선에서 스리백을 플랜A로 고려 중인데, 3-4-2-1 포메이션에서 공수를 실 새 없이 오가야하는 윙백 역할이 핵심이다. 홍 감독은 바로 이 지점에서 양현준의 높은 활용 가치를 주목했다. 양현준의 대표팀 복귀는 지난해 6월 이후 9개월 만이다.

홍 감독은 "양현준은 현재 소속팀에서 공격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전임 감독 시절 윙백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사이드 쪽으로 벌러 일대일 돌고 같은 공격적으로 나섰고, 멀티 골까지 터트려 자신감이 좋을 것"이라

**홍명보 감독, 3월 A매치 명단 발표**  
셀틱 왕어 양현준 9개월 만에 복귀  
전술상 공수 오가는 플레이가 핵심  
"5월까지 가장 잘 하는 선수 뽑을 것"

공격수	손흥민(LAFC) 오현규(베식타시) 조규성(미트윌란)
미드필더	이강인(파리생제르맹) 이재성(마인츠)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인범(페예노르트) 백승호(버밍엄시티) 김진규(전북) 박진섭(저장FC) 양현준(셀틱) 홍현석(헨트) 권혁규(카를스루에) 배준호(스토크시티) 엄지성(스완지시티)
수비수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한샘(미트윌란) 옌스 카스트로프(린헨글라트바흐) 김주성(산프레체 히로시마) 김태현(가시마) 김문환(대전) 이태석(빈) 설영우(츠르베나 즈베즈다) 조유민(샤르자)
골키퍼	김승규(FC도쿄) 조현우(울산) 송범근(전북)

며 "오른쪽 포지션 구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양현준은 전날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머더웰과 경기에서 왕어로 나서 2골을 몰아쳤다. 양현준은 올 시즌 주포지션인 측면 공격수뿐만 아니라 오른쪽 윙백과 풀백까지 소화하며 8골을 넣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양현준의 입지는 불안했다. 지난해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태극마크를 다시 품은 셀틱FC 양현준. [연합뉴스]

여름 선택을 떠나는 것을 고려할 만큼 힘든 시기를 보냈다. 브랜던 로저스 전 감독 체제에선 외면받았고, 윌프레드 낭시 전 감독 시절엔 윙백을 맡기도 했다. 그러나 마틴 오닐 감독 부임 후 넘치는 에너지와 전진 능력을 과시하며 핵심 선수로 거

듭났다. BBC 스코틀랜드판도 양현준 활약을 "센세이셔널"이라고 평하면서 "크리스마스 이후 리그에서만 6골을 터트리며 셀틱 우승 경쟁을 이끌었다"고 칭찬했다. 반면 소속팀 잉글랜드 코번트리 주전 경쟁에서 밀린 양민혁은 제외됐다. 홍 감독은 "소속팀에서 경기력이 좋은

## 도미니카 잡아낸 미국

미국, 2대 1 역전승으로 결승 선착  
폴 스킨스 등 투수진, 강타선 압도  
베네수엘라 vs 이탈리아 오늘 격돌

2026 월드컵베이스볼클래식(WBC)의 '사실상 결승전'으로 불린 미국과 도미니카공화국의 16일(한국시간) 4강 맞대결. 1-2로 뒤지던 도미니카공화국이 9회말 마지막 공격 기회를 맞았다. 첫 타석에는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45홈런을 터뜨린 거포 후니오르 카미네로가 나섰고, 대기 타석에는 32홈런의 홀리오 로드리게스가 버티고 있었다. 언제든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최강 타선이 찬스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운드에는 미국이 자랑하는 주전 마무리 메이슨 밀러가 버티고

있었다. 지난해 26세이브를 올린 밀러는 최고 시속 102마일(164km)의 강속구를 앞세워 도미니카공화국의 강타자들을 차례로 제압했다. 카미네로를 삼진으로 돌려세운 뒤 로드리게스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대타 오닐 크루스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했다. 이어 마지막 타자 헤랄도 페르도모까지 삼진으로 잡아내며 경기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룬디포파크에서 열린 WBC 준결승전에서 미국이 웃었다. 역대 최강 전력으로 평가받던 도미니카공화국의 막강 타선을 완벽히 봉쇄하며 2-1 신승을 거뒀다. 2017년 우승과 2023년 준우승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3회 연속 결승에 진출하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경기는 사전 예상과는 전혀 다른 양



WBC 4강전에서 도미니카공화국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아래)를 아웃시키고 있는 미국 3루수 거너 헨더슨. [연합뉴스]

상으로 흘러갔다. 메이저리그 최고 강타자들이 즐비한 양 팀의 화력 대결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팽팽한 투수전으로 전개됐다. 미국 선발 폴 스킨스는 4%이닝 6피안타 1실점으로 호투했고, 도미니카공화국 선발 루이스 세베리노도 3%이닝 5피안타 1실점으로 잘 버텼다. 다만 두 투수 모두 한 가지 흠결이 있었다. 바로 피홈런이었다. 스킨

스는 2회 카미네로에게 선제 좌중월 솔로 홈런을 허용했다. 바깥쪽 높게 들어온 스위퍼를 카미네로가 힘차게 잡아당겨 담장을 넘겼다. 미국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4회 선두타자 거너 헨더슨이 세베리노의 커터를 통타해 우중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이어 윌 스미스가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난 뒤 도미니카공화국 벤치는

마운드를 그레고리 소토로 교체했으 나, 이는 악수가 됐다. 다음 타자 로만 앤서니가 소토를 상대로 중월 솔로 홈런을 뽑아냈다. 3볼-2스트라이크 풀카운트에서 한가운데로 몰린 6구째 153km 싱커를 놓치지 않고 받아쳤다.

이후 승부는 양보 없는 불펜 대결로 이어졌다. 미국은 5명의 투수를 차례로 투입하며 남은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았고, 도미니카공화국도 소토를 조기 교체한 뒤 남은 불펜을 총동원해 역전을 노렸다. 그러나 기대를 모았던 타자들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했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1안타씩만 기록했을 뿐, 후안 소토와 로드리게스는 무안타로 침묵했다. 결국 9회 마무리 밀러가 마지막 10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미국의 승리를 확정 지었다. 결승은 18일 미국이 베네수엘라-이탈리아의 4강전 승자와 겨룬다. **고봉준 기자**

#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학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mailto:mkim@prosperlawpllc.com)

**진료 과목**

- 척추질환
- 좌골신경통
- 오십견
- 관절염
- 요통
- 소아과
- 부인과
- 생리불순
- 생리통
- 임덧
- 두통
- 위장질환
- 면역질환
- 한약처방 조제
- 불임치료
- 중풍
- 안면 신경마비
- 비염
- 알러지 질환
- 수술 및 사고 후 통증
- 노인성 변비
- 질환성 비만
- 추나 요법
- 전기침 요법
- 부항 및 운동 치료 요법
- 테이핑 요법
- 한국산 수제 우황청심환

**문의-예약 703.642.6066**

**웹사이트 hanilacu.com**



**중의학 박사 연태흠 원장**

- 상해중의약대학 본과 및 박사 졸업
- 상해 서광의원 정현외과 4년 연수
- 한국 한일한의원 부원장 역임
- 중국 국가급 명의 석씨상과 사사

100년을 이어오는 신실함

## 한일한의원

7345 Mcwhorter Pl. Suite 101,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 보험**

- CareFirst
- United Healthcare
- Anthem
- Aetna
- Humana
- Medicare Advantage Plan
- Worker's Compensation Program
- Veterans Affairs

※ 보험 플랜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습니다.

#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http://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http://www.facebook.com/LandBUniversal)

3월  
구  
인  
광  
고

귀하의 성공을 돕는 중앙일보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구인**

Home Improvement  
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우·도어  
경력자 구함  
합법 신분자

**703.944.8433**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성공 비즈니스...  
시작이 중요합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8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571-239-6054**

**구인**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마케팅 세일즈 직원 모집

- 영어/한국어 가능
- 출장 업무 필수
- 운전 경력 풍부하신 분
- 취업에 결격 사유 없으신 분
-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301.468.8949**  
www.onnaturalusa.com

**급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매매**

확실한 수익보장 델리

DC SW 매매가 32만불 (cash only)

- 연간 수익 15만불이상 (주매상 만불)
- 수월한 운영 (키오스크 시스템)
- 저렴한 렌트비 (\$2700/월)
- 오랜 경험의 믿음만한 직원 2명
- 주 5일 (6am ~ 3pm)
- 공실위험 없는 건물

**703.300.7207** (텍스트)  
관심있는 분만 연락주세요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 (플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 메릴랜드

### 구인/사무/직원모집

H-Mart Wheaton 매장 직원 모집  
모집부서: Customer Service  
근무지: 위튼점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301-942-5071

식품 도매 회사에서 직원 구함  
-사무직 0명, 배송기사 0명  
주 5일 근무, Full time or Part time  
Paid time off, Medical insurance 제공  
eni@enidist.com  
Essex MD (301)477-4010

메릴랜드 몽고메리물 시계 및 주얼리 샵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학생 환영  
301-365-7794

뷰티케어 브랜드 회사 직원 모집  
마케팅 세일즈 분야, 영어/한국어 가능  
출장업무 필수, 운전 경력 풍부하신분  
취업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근무지: Rockville, MD / 타주 가능  
이력서: RnRniacct@gmail.com  
문의: 301-468-8949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 (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 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간병인  
-건강보험 및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443-288-6677

### 세탁/이미용/기타

메릴랜드 하노버에 위치한 무궁화 시니어  
의료 복지관에서 직원 구함  
-폴타임 운전하실분  
-주방 보조  
▶410-850-4059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사용 밥기(일본제품) 6,000불  
2. 욕구 버너 350불  
3. 튀김(덴뿌라) 기계 300불  
4. 그릴스몰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쿨러 밴,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영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글렌버니 리커스토어에서 함께 일하실분  
유경력자, 파타임  
443-262-1813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 am - 2 pm) \$18/hr + tips  
703-785-8763

손 사이딩 올드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에 한함  
703-944-8433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세지 주세요)

엘리컷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홀 서버하실  
분 구합니다.  
▶443-420-3096

### 싱글/타운/방렌트

메릴랜드 엘리컷 시티에서 15분 거리  
큰 싱글 지하전체 렌트,  
간이 주방, 큰 방, 큰 거실, 큰 욕실, 주차 가능,  
유포 \$1,200  
703-231-5572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  
로 근처 싱글홀 방하나 렌트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환영  
301-655-3248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홀 2층방 렌트  
유포, 직장인, 잠만 주무실분 \$700  
240-393-3615 (문자요망)

메릴랜드 저먼타운 싱글홀 방렌트 합니다.

욕실, 주방, 가구, 인터넷 완비  
301-533-1438

메릴랜드 하워드 카운티 반지하 전체 렌트  
방2, 부엌, 욕실, 세탁실, 출입문 별도, 롯데에서  
15분 거리  
443-797-7293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홀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2. 쿵푸티 \$15만, 수월한 운영  
3. 애난데일 한/일 식당 \$27만  
4. 애난데일 피자 컨셉으로 식당하실분,  
대로변 위치  
5. 락빌, 저먼타운, 엘리컷시티  
->식당 파실분 연락바랍니다. 바이어대기중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창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에 703-534-4989

메릴랜드 솔로몬 아일랜드안에 위치한  
한식당 매매합니다.  
\$300,000, 최적의 위치, 좋은수익,  
저렴한 렌트비  
804-519-1918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 5일, 좋은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곳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 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장소  
3. 대형 식당, 패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곳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라이센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 공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델리 \$170,000 렌트 \$5,791  
너무 좋은 자리, 1200 SF, 주매상 \$10,000  
▶703-928-5990

델리샵 (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버지니아

### 구인/사무/직원모집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 Office Maintenance  
□ Van Driver  
은퇴하신분 환영  
이력서 제출 bongL@ccdc.edu  
www.ccdc.edu

굿피플 USA 사무행정/사업관리 직원모집  
비영리 단체 경력자, 한/영 능통자 우대  
폴타임 (급여는 경력별 협의)  
근무지 McLEAN, VA, 이력서 / 자기소개서:  
▶info@goodpeopleusa.org

탐여행사 미동부 투어가이드 사무직원 구함  
-센터빌 지점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info@toptravelusa.com  
▶703-543-2322

우리 아메리카 은행에서 Full Time 텔러를  
찾습니다.  
근무지: 센터빌 지점  
베네핏: 의료보험, 유급휴가, 401K  
자격요건: 합법 신분자  
이력서: hr@wooriamericabank.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보험회사에서 일하실  
폴타임 사무직 직원 구함  
Kmw122@gmail.com  
703-750-2205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파트타임, 판매 경력자 우대  
문의: 703-309-7885

애난데일 홈케어 매니저/지점장 구함  
매니저 유경력자 우대, 영어/한국어 이중언어  
우대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 직원 모집  
매니저/시니어 어카운턴트  
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문의: 571-389-4415  
이력서: hr@yicompany.com

버지니아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다. 이중 언어자 환영  
▶703-259-5617

노인 의학 클리닉에서 남자 간호 보조원  
(MA) 채용합니다.  
▶240-232-5989

패어팩스에 위치한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  
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  
해 드리는 보험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생명보험 라이선스 소지자  
703-939-2737

CarePeople Home Health RN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애난데일 회계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구합니다.  
이력서: k546272@gmail.com

안과에서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함  
다. 이중언어 가능자  
이력서: dceyclinic@yahoo.com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있으며,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j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력자 가능, VA & MD  
▶703-598-3316 /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력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션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합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폴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 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케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러브앤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andhomehealth.com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571-549-6789

김서규 공인 회계사 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녀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차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  
-오후 근무 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센터빌, 찰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김진욱

###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 NO.1

###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 브래덕

### 패밀리 치과

####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 구인

### 메릴랜드 베데스타 한방병원에서

####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광고한달유료게재, 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중앙일보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 식당/식품

페어팩스 일식당에서 직원 구함  
-서버 (영어필수,페이우대)  
703-628-9168 (문자)

RT-1 퀸티코 근처 편의점에서 신원 확실한  
남자 경력자 구함.  
443-618-7141 (문자)

애난데일 한식당에서 홀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703-712-7417

애난데일 명품 계장에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  
리스 & 웨이터 구합니다.  
703-398-2226

애난데일에 위치한 제과점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슈어 풀타임 (유/무 경험자)  
제빵사 풀타임 (유경험자)  
703-625=8525

DC - CUA 메트로 근처  
American Breakfast에서 서버 구합니다.  
풀&파타임 (6am - 2pm) \$18/hr + tips  
703-785-8763

우드브리지 퀸티코 부대안에 있는 일식당에  
서 함께 일하실 웨이츄리스 구함.  
신분 확실하시고 영어 가능하신분  
703-640-7488/443-978-0900

영어 가능한 할리 매니저 구합니다.  
DC SW (월-금, 6am - 3pm)  
703-300-7207 (문자)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화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틸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슈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파타임  
▶571-991-4172

## 이미용

매나사스 파크 바버샵에서 함께 일하실  
바버 구함. 일주일에 3, 4일 일하실분  
703-473-9771

## 세탁/얼터레이션

알링턴 DC 지역 세탁소에서 직원 구함  
풀/파타임 카운터 보실분  
풀/파타임 얼터레이션 하실분  
571-455-3609

알렉산드리아 테일러샵에서 바느질 하실분  
모십니다.  
3일 파타임 가능하신분  
703-328-3064

##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경력자 구합니다.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 기타 구인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메케닉 & 준메케닉  
▶703-220-1400

애견 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  
▶571-660-8182

InCourage Martial Arts 에서 태권도 사범  
모집합니다.  
버크, 페어팩스, 애쉬번, 퍼셀빌  
Tony@incouragemartialarts.com  
문의 571-243-7027 (text 가능)

손사이드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홀 인프루브먼트 회사에서 함께 일하실 윈도  
우, 도어 경력자 구합니다. 합법적 신분자  
703-944-8433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571-591-4455

## 싱글/타운홈 렌트

센터빌 타운홈 렌트  
방3, 화3.5, 밝고 환한 편리한 타운홈, 업데  
이트한 부엌 (그레이트 카운터탑, 새냉장고),

새마루, 새 페인트, 잘 수리된 화장실,  
펜스 있는 뒷마당, 독점 파킹 2개, Visitor 파  
킹 다수, 교통 편리  
▶703-477-311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홈 전체 렌트  
방4 화3.5 \$3,200 or 일부 방3 화2.5  
\$2,200  
470-485-1875

1. 매나사스 타운 \$3,400  
(2025년 12월 새집) 2,700sq, 방4, 화3.5,  
로프트(오피스), 2/4층 데크, 차고 2, 모던 오픈  
스타일 키친, 234/66/GMU 근처,  
이노베이션 팍 쇼핑몰 인근, 교통 편리,  
센터빌 10마일  
2. 브리스토 타운 \$3,200  
방4, 화3.5, 차고 2, 전부 마루, 모던 오픈 스타  
일 키친, Patriot High 최고 학교, 234/  
Sudly manor, near Costco  
▶571-239-6054

1. 게이더스버그 타운홈 \$3,300  
방4, 화장실 2  
2. 제셋 타운홈 \$2,800 방3, 화장실 3  
3. 엘리컷시티 타운홈 \$2,750  
방3, 화장실 2.2  
4. 파사데나 타운홈 \$2,600  
방3, 화장실 2/2  
5. 콜롬비아 싱글홈 (반지하) \$1,500  
방2, 화장실 2  
▶301-318-4242 / 443-668-0453

## 콘도 렌트

비엔나 메트로 근처 콘도 렌트 \$2,700  
방2, 화2, 차고1, 수영장, 휘트니스 센터,  
물값 포함  
571-271-2457

알렉산드리아 콘도 렌트 \$1,750  
방1, 화1, 주차2, 모던 관리비 포함  
703-863-0321

센터빌 롯데 근처 콘도 전체 렌트합니다.  
방2, 화2.5, 교통 편리, 즉시 입주 가능  
\$2,250  
301-466-1646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 방 렌트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방1, 화1 렌트  
703-989-0103

센터빌 H마트 근처 타운하우스 지하 전체 렌  
트, 앤드 유닛, 출입문 별도, 욕실 완비, 유포  
(3시 이후 전화요망, 또는 문자 남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703-474-5590

스프링필드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 인터넷,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분 환영  
571-286-2439

센터빌 타운홈 작은 방 임대 \$700 (유포)  
문의 : 301-928-4125

센터빌 타운홈 큰방, 개인욕실 \$1,200  
베이스먼트 전체 \$1400

571-243-7027 (Text)

로튼 싱글하우스 지하 전체 렌트  
워크아웃, 유포, 방2, 거실, 부엌, 욕실, 세탁  
실, 초중고 걸어서 통학, I-95 1마일,  
즉시 입주 가능  
703-774-4939

설악가든 근처 조용한 싱글홈  
방1, 화1, 출입문 별도  
간단 가구, 취사, 인터넷, 금연자, 즉시 입주  
571-243-6295

로튼 싱글하우스 반지하 전체 렌트  
\$2,000 (유포), 방3, 거실, 주방,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571-488-5860

스프링필드 싱글하우스 1층 큰방 렌트,  
가족같이 지내실 여자분 환영  
703-517-9108

로튼 (스프링필드 근처) 주택가 렌트  
넓은 1층 같은 워크아웃 전체  
방3,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주방, 유틸리  
티 포함, 출입문 별도  
571-488-5860

Fairfax/Burke 지역  
노바, 조지메이슨, 버크 마트 10분 거리  
인터넷, 취사, 유포, 여자분 환영 \$650  
571-214-0188 (문자 요망)

센터빌 롯데 근처 타운하우스  
2층 욕실 딸린 큰방 렌트합니다.  
571-970-8048

애난데일 시루양 방하나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973-8123

애난데일 예촌양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룸  
또는 작은 방 렌트, 가구 완비, 취사 가능  
703-622-2033

센터빌 H마트 5-10분 거리, 싱글하우스 밝  
고 조용한 뒷층방, 마루, 유포, 교통 편리, 여  
자분 환영  
571-345-8879 (문자요망)

페어팩스 조지메이슨 & 노바 대학 근처 방 렌  
트, 금연자, 즉시 입주 가능  
703-472-2295

게인스빌 타운홈 베이스먼트 워크아웃 방하  
나 렌트합니다. 거실/화장실/세탁실/침만  
주무실분  
703-732-1246

첼트리 롯데 마트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 하  
우스 방세 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애난데일 원룸 스타일 방 렌트합니다. 방안  
에 샤워실, 키친, 냉장고, 침대, 책상 다 갖추  
어져 있고 깨끗합니다.  
571-232-6052

애난데일 H마트 옆 밝고 조용한 콘도 방하나  
렌트, 남자분 환영  
571-326-5605 / 301-266-1858

애난데일 큰 싱글홈 밝고 큰 화장실 딸린 방  
렌트합니다. 교통 편리 롯데 1분 한강 식당 1  
분 거리, 입구 별도, 주차 넉넉  
703-395-4380 / 703-965-2343

## 사무실/점포 렌트

매나사스 코스코 근처 일반 오피스  
또는 병원, 한의원도 가능, 즉시 입주 가능,  
390sf, \$24/sf/yr, 3-10년  
연락처 : windmill7000@gmail.com

센터빌 던킨 도넛 뒤 오피스 렌트  
1층, 1250sf, 주차 다수, 즉시 입주 가능  
703-861-9923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 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 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 스페이스, 파킹 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1. Mclean 싱글하우스 \$2,790,000  
방7, 화6.5, 5년된 집, 주인의 사랑으로 잘 관  
리된 집, 정전 대비 제너레이터 있음,  
2. Vienna 싱글 하우스 \$1,390,000  
방5, 화3.5, 타이슨스 코너 dmv 근처 위치  
좋고 조용한 동네  
3. Annandale 싱글 하우스 \$700,000  
위치 좋은 애난데일, As-is Condition  
▶703-625-9909

1. 알디 고급 싱글홈 \$1,725,000  
방5, 화 5.5, 최고급 빌더, 2024년  
5,800sq, 40만불 이상 업그레이드된 집,  
더블 아일랜드, 최고급 기능 부엌, 특별하게  
디자인된 방과 화장실  
2. 폴스처치 콘도 \$210,000  
완벽하게 리모델링한 예쁜 콘도, 교통 편리,  
고급스러운 새 화장실, 새 나무 마루, 새 페인  
트, 넓은 창문, 잔디밭이 보이는 큰 발코니  
3. 헌튼 콘도 \$310,000  
방2, 화2, 예쁘게 새로 단장한 콘도, 맨 윗층,  
새로 업그레이드된 부엌, 새 페인트, 새 조명  
과 전등, 교통 편리  
▶703-813-8949

클락스빌 타운홈 \$759,000  
방3, 화3.5, 차고  
▶301-318-4242/443-668-0453

1. 알링턴 싱글홈 \$1,600,000  
방4, 화3, 3,056sf, 2000년도에 지은 집  
2. 첼트리 싱글홈 \$1,089,000  
방4, 화3.5, 4,237st,  
RT-50 사우스라이딩 경계선  
3. 웨스트 스프링필드 타운홈  
방4, 화3.5, 2,247sf, 하이스쿨 주변, 조용한  
주택가  
▶703-486-6082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빙트리 펫 리조트

이제 두 여행할 때 지인에게 강아지를 맡기시나요?  
여기 한인 2세가 운영하는 Pet Resort를 이렇게 보세요!

**Room**

- 아늑한 럭셔리 룸
- 특급 Hotel급 특실
- 경력이 풍부한 훈련사
- 한적한 뒷동산 산책로

**Grooming**

- 한국인 선생님들의 풍부한 경력, 예술적 그루밍
- 목욕 및 스킨 케어
- 최신식 목욕 시설
- 실내 및 야외 놀이 시설

\*애견미용사 구함. (givingtree.alison@gmail.com/한인 담당: 571-660-8182)

•1호점 (본사/레스톤): 571-325-2994  
1912 Association Dr. Reston, VA 20191

•2호점 (폴스처치): 571-799-8100  
130 West Jefferson St. K9 Club, Falls Church, VA 22046

•3호점 (알렉산드리아): 571-257-6420  
6118 Rose Hill Dr. Alexandria, VA 22310

www.givingtreepetresort.com

#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지?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 OK 택시

장거리 영업으로 어디든 가능  
병원, 공항, 장거리 카지노 모두 24시간 가능



엘리컷 시티, 락빌, 애난데일

## 노기사

571-332-3987

#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6년 3월 17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계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1. 비엔나콘도 \$325,000  
방1, 화1+Den, 굿 로케이션, 전체 마루, 넓은 욕, 가스, 물 포함한 저렴한 관리비  
2. 센터빌타운 \$600,000  
방3, 화2.5, 차고1  
3. 페어팩스 싱글홈 \$980,000  
방4, 화3.5, 차고2  
▶703-919-04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2005년  
방4, 화3.5, 차고2, 집 전체 마루, 교통과 학군 이 우수하며 높은 부동산 가치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핵심 입지 조건, 코스코 부근  
2. 센터빌타운홈 \$530,000  
방3, 화3.5, 1250sf  
3. 캔들리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3레벨 모두 범프 아웃되어 동네에서 큰 타운홈이며, 지은지 11년된 비교적 새타운홈  
4. 센터빌타운홈 \$700,000  
방3, 화2.5 차고2  
▶703-231-5572

1. 페어팩스타운홈 \$850,000  
방4, 화장실3.5, 차고2, 엔드 유닛, 아주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2. 페어팩스 싱글홈 \$999,000  
방5, 화장실 4.5, 차고2, 넓은 구조와 잘 가꾸어진 벽돌 집, 나무 마루  
3. 페어팩스 싱글홈 \$1,050,000  
방4, 화장실 3.5, 차고2, 웃속 학군, 편리한 교통, 최근에 업데이트한 집  
4. 비엔나싱글홈 \$1,875,000  
방6, 화장실 6, 차고2, 새집 같이 아주 멋지고 고급스러운 집, 편리한 교통  
▶703-899-8999

1.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다 새로 고친 집, HOA 없음  
2. 포토크싱글홈 \$1,075,000  
방4, 화장실 2+1, 차고2, 포토크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410-417-7080

메릴랜드 랜햄싱글홈 \$700,000  
1991년, 방4, 화3.5, 차고2, 지하올수리, 업 그레이드, 넓게 확장한 거실  
▶703-863-0321 / 301-399-0140

알렉산드리아 3층 타운홈 \$749,900  
방3, 화3.5, 차고2, 교통 편리  
▶703-489-6926

우드브릿지싱글홈 \$970,000  
Woodbridge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에 있는 싱글홈  
▶703-622-0312

1. Elkridge 타운홈 \$625,000  
방3, 화장실 2+2, 차고2, 아주 넓고 이쁜 집, 마루 바닥, 1층에 안방  
2. 실버스프링 타운홈 \$750,000  
방3, 화장실 3+1, 차고2  
13년된 벽돌로 지어진 고급 타운홈,  
3. 엘리컷시티싱글홈 \$820,000  
방5, 화장실 3+1, 차고2, 밝고 이쁘게 잘 꾸며진 집, 넓은 뒷뜰  
▶410-417-7080

1. 워싱턴 DC세 타운홈 \$649,000  
방5, 화장실 3+1, 새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2. 워싱턴 DC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한 예쁜 집  
▶410-417-7080

## 사업체 매매

1.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FAIRFAX CO  
2. 쿵푸티 \$15만, 수월한 운영  
3. 애난데일 한/일 식당 \$27만  
4. 애난데일 포차 컨셉으로 식당하실분, 대로변 위치  
5. 락빌, 저면타운, 엘리컷시티  
->식당 파실분 연락바랍니다. 바이어대기중  
▶703-303-8003

1. 애난데일 한국 식당 4,000sf, \$27만  
2. 벨츠빌, 델리, 주 \$만불, 렌트 \$3,300 9년 리스, \$17만  
3. 엘리컷 시티 지역 식당 파실분, 바이어 대기중!  
4. Tysons 참고 1,800sf \$4,800/Month  
5. Alexandria 태권도장 나간자리, 2,750sf  
▶문미애 703-534-4989

DC 백악관 옆 픽업 스토어 매매  
저렴한 렌트비, 주5일, 좋은 수익, 은퇴예정  
443-618-8100

1. 주 5일 Deli & Cafe 애난데일 근처 \$60,000/1,400sf/렌트 \$2,900/굿 파킹  
2. 주 5일 Deli & Cafe DCNW \$70,000 렌트 \$4,300/매상 증대 최적 장소  
3. 대형 식당, 페어팩스 \$250,000 7,000sf/180석/연회전문/굿 파킹  
4. DC NW 2층 한식당 \$200,000 리퀴 라이선스/퓨전 한식 적합  
5. 명품 간장게장 2nd Location 투자자 모집  
6. 치킨 프랜차이즈, 주매상 4만  
7. 일식집, GMU 근처 15만불 주매상 1만5천, 넉넉한 파킹  
8. DC NW 잘 꾸며진 한식/분식 식당 20만  
9. DC NW 드라이크리닝 픽업, 주매상 9천, 주 5일, 대로변 위치  
▶DJ Lee 703-303-8003

베데스타 샌드위치샵 \$170,000  
너무 좋은 자리, 1200SF, 주매상 \$10,000  
렌트 \$5,791  
▶703-928-5990

델리샵(DC) \$150K  
DC내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안정된 수입, 투자용  
▶703-625-9909

## 중고 매매 / 기타

업소용 중고 주방용품 매매합니다.  
1. 스티용 밥기계 (일본제품) 6,000불  
2. 육구 버너 350불  
3. 튀김 (덴뿌라) 기계 300불  
4. 스톨 그릴 300불  
5. 큰 버너 200불  
571-501-4780 (문자요망)

95년형 벤츠 300, 18만 마일, \$3,000  
703-966-9597

2018년 포드 트랜짓 250, 인슐레이션된 콜러벤, 차고지 MD  
201-681-4470

OK 택시 엘리컷시티, 락빌, 애난데일 장거리 영가로 어디든 가능, 병원/공항/카지노, 24시간 가능  
571-332-3987

최고급 등산 장비 팝니다.  
아래 번호로 메시지 남기시면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703-869-5919

피아노 레슨 합니다.  
유치부, 초/중/고 및 입시반, 성인 취미반, 특수 아동, Zoom & In-person  
703-772-2987 (문자)

비숙련 영주권 프로그램 변호사가 운영. 낯싱홈, 나이, 학력, 경력, 성별 무관, 직계 가족도 영주권 혜택  
웹사이트: useb3.com  
문의 이메일: admin@eb3recruit.com  
전화: 571-546-8683

색소폰, 클라리넷, 호른, 트럼펫, 트럼본, 플루트 - 악기별 개인 맞춤 레슨  
757-338-8496

## 건축/페인트/마루

Bristow, VA에 위치한 Commercial Remodeling 회사에서 Project Manager 구함. Auto Cad 경험 필수  
703-507-3495

손 사이딩 올드 하우스 메케닉 헬퍼 구함  
703-955-2827 / 540-680-1571

JGL 건설 회사  
하청없이 25년 이상 숙련된 분사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571-213-8678

JJL CONTRATOR INC.  
지붕 고민/돈 걱정 그만 하세요  
▶703-835-0945

형제 건축&지붕  
가정용, 상업용, 부엌, 화장실, 지하실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 드립니다.  
▶703-928-6255

애버사인 건축  
키친, 부엌, 베이스먼트 리모델링 및 페디오, 펜스, 텍, 기타 집수리, VA/DC 라이선스 보유, 오랜 경력, 보험 가입  
▶703-994-2943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레드문 페인트  
하우스 페인팅(In & Out), 텍 메인テナンス와 클리닝, 샌딩, 파워 워시, 핸디맨 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자재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 모든 공사, 주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 보험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신가요? 메디케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703-961-8811

생명보험, 은퇴연금, 비즈니스 세금 절감 플랜까지 전문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세요.  
703-939-2737

지금 연금, 정말 만족하십니까?  
한번의 점검이, 내일의 차이를 만듭니다.  
703-577-8181

정문기 메디케어 보험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 신청 도와드립니다.  
▶703-598-3316

우니화재 사업체, 자동차, 집, 의료, 생명보험  
▶1-866-915-6664

정선화 브릿지원 메디케어/메디케이드 보험  
▶703-862-5395

조은혜 종합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접수 /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 용자

로리문 맞춤형 연금 & 재정 관리  
▶703-895-7648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유나이티드 모기지네이션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 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 소독/가스검사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 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트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 옷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 펌프, 정수장치 \*\*연중 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냉동 (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 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 보석/웨딩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 / 영 어 필수 우대  
703-691-1993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 드레스 & 텍 시도 대여  
- 웨딩 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예산 선정  
▶703-642-2247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 블라인드/카펫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 가격  
▶571-229-4633

TOTAL BLACKOUT LLC  
한국산 블라인드 전문,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AS 전담팀 보유,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모든 샘플 가지고 방문  
▶703-600-9031

토탈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 우드 / 타일, 주거용/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스 팀삼푸,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 폴청소,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플로워 왁스  
▶703-967-4155

## 플러밍

B3 플러밍에서 함께 일하실분 구함  
- 메케닉  
- 준 메케닉  
▶703-220-1400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운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홈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디스포저, 워터히터/물 새는 것, 하수막힘/변기교체, 셉텀프 교체  
571-594-4080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운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 (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이사, 자체 창고 보관  
▶703-550-5550

## 리모델링/핸디맨/전기

토요 핸디맨  
전기, 목수, 타일, 배관, 창문, 마루, 페인트  
443-994-3415 (전화 메시지 주세요)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역류장치/MD fire 스프링클러/주방화재방지/복구작업(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 처리 가능/응급(철, 스텐, 알미늄)/제작및설치(키친후드, 덕트)  
▶301-222-3277

H.P. 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디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JJ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 유리

JK 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 임업/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토지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울타리 라인/산책로 및 목초지 관리  
▶540-905-2849

생활안내 줄광고 게재요청  
703-281-9660 (text)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험

###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1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 · C 플랜 · 약보험 · 치과 · 안경 · OTC

자동차 · 주택 · 사업체 보험

“보험료” 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 냉·난방

###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 · MD · 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Office: 703-618-4822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Cell : 703-678-1749 www.LBuniversal.com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www.facebook.com/LandBUiversal

## 건축 / 페인트

# TK 종합건축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 · 시공 및 건물 ·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 · 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 · 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링,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 미용 타투

##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저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귀국이삿짐
- 타주이사
- 해외이사
- 시내이사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 수아 미용 타투

SERVICE LIST

- 두피 염색 (가르마, 정수리 전체)
- 눈썹, 아이라인, 입술
- 속눈썹/헤어 생장술
- MTS (미백, 주름개선 세럼)
- 스킨케어

443-722-5925

## MD 업소 안내

## 냉난방

###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 소독

###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찌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 건축

###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 용자

###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용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 웨딩스토리

### 토탈 결혼 준비

- 웨딩 플래너
-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 웨딩플라워 데코
-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 인터테크 냉난방

###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앙 일보안에  
있습니다

© 위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 MI 이사짐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클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 SK 플러밍

-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 Dishwashers, Disposals
-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야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 EVERSHINE Construction

###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blinds.com / bbgbblinds@gmail.com

##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민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 홈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플러밍

- ◆ 수도꼭지 교체
- ◆ 싱크 / 디스포저
- ◆ 워터히터 / 물새는것
- ◆ 하수막힘 / 변기교체
- ◆ 씬펌프 교체

**571.594.4080**  
VA 라이선스/보험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 우주 Mechanical, LLC

-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컨
- 역류장치(Backflow)
- MD Fire 스프링클러
- 주방 화재 방지
-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 블라인드 / 틈트

## “100% 한국산 공장직영”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VA, MD, DC, PA, NC 전지역을 총괄하는 지사 오픈!!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703.600.9031**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to be tied up; 바쁘다

(Roger is talking to his friend Dan on the telephone...)

(라저가 친구 댄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Roger: So when are you coming to Los Angeles? 라저: 그대 LA에는 언제 올 거야?  
Dan: I have a medical convention there on the weekend of March 21th. Are you free? 댄: 3월 21일 주말에 LA서 열리는 의학회의에 참석하는데 너 시간 돼?  
Roger: Oh no I'm not! I'm going to be tied up that weekend. 라저: 이런 시간 안 돼! 그 때 주말은 바빠서 꼼짝

못 해.  
Dan: Oh? What are you doing? 댄: 그래? 뭐 하는데?  
Roger: I'm meeting with a text book publisher who wants me to write a book for his publishing company. 라저: 교과서 출판사에서 책을 써달라고 해서 만나기로 했어.  
Dan: Hey that's great! 댄: 그거 잘됐네!  
Roger: I know but we won't be able to hook up when

you're here.  
라저: 그렇긴 한데 네가 오는데 못 만날 것 같아서.  
Dan: That's okay. We can talk on the phone. 댄: 괜찮아. 전화로 얘기하면 되지.  
Roger: Maybe this summer I can make it up to see you in Seattle. 라저: 어쩌면 이번 여름에 널 만나러 시애틀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Dan: Sure. That would be great. 댄: 그래. 그럼 좋지.

기억할만한 표현

▶ \*Is (one) free?: (누구) 시간 있어?  
"Are you free this weekend? Do you want to see a movie?"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영화 한 편 볼래?)  
\*hook up (with someone): (구어체) (누구와) 만나다.  
"Let's hook up tomorrow and have lunch." (내일 만나서 점심하자.)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가로열쇠

(1) 필요한 것을 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추. 오랜 전세살이 끝에 내 집을 ~하는 것은 대다수의 서민이 꿈꾸는 일이다 (3)잠을 자면서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말 (5)첫째가는 좋은 맛. 그 집의 음식 맛은 천하 ~이다 (7)아내가 남편 없이 혼자 지냄. □□공□ (8)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름.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옴. □출□□ (9)예순 살. 공자가 예순 살부터 어떤 일을 들으면 곧 이해가 된다고 한 데서 나온 말이죠 (11)앨리베이터 (13)큰 나무들이 뻗뻗하게 들어선 깊은 숲. 밀림 (15)물집 (17)배를 땅에 대고 김 (19)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21)지대가 높은 땅 (23)씨릿게비나 버들가지 따위로 둥글넓적하게 결어 만든 그릇 (25)병 따위에 꽃아 놓고 액체를 붓는 데 쓰는 나팔 모양의 기구 (27)자동차 따위가 뒤에서 들이받음 (29)말씀하시기를. 공자 ~ (31)부자 되는 것과 지위가 높아 되는 것은 하늘에 달렸음. □귀□□ (33)공을 사용하는 운동 경기 (34)높은 곳에 올라갈 때 필요한 기구 (35)건축물에서 지붕을 받치는 나무

세로열쇠

(1)간장, 된장, 고추장 따위를 담아 두는 그릇 (2)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 □□무□ (3)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홰바지 (4)큰 마루 (5)한 마리의 물고기가 물을 흐림.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됨. □□탁□ (6)얼굴이 잘생긴 남자 (10)순수한 감정이나 애정. 열아홉 살 삼 색사가 ~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11)싸움에 이겼을 때 울리는 북 (12)액체나 고체 속에 들어 있는 기체 (14)모래의 다음 날 (16)어린이를 덮어 주거나 업을 때 쓰는 작은 이불 (18)점을 쳐 준 값으로 주는 돈 (20)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 (22)날날의 짙. 부서진 짙의 부스러기. 물에 빠지면 ~라도 잡는다 (24)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음. 되새김 (26)더럽게 엉겨 붙어 있을 때의 조각이나 부스러기. □□□□ (28)땅 위로 내민 플랫폼의 뾰족한 부분 (29)집 안 살림에 쓰는 기구. 장롱·책장·탁자 따위 (30)배우가 하는 말 (32)뇌성과 번개를 동반하는 대기 중의 방전 현상

스도쿠

		2		3				
1				5	9			
	4					6		8
9		4	5				8	6
			6		1	2		
2				8		5		
	6	7	2	9			4	
	1	3					5	9
4								



자료제공=골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9	7	8	1	3	5	6	4
6	5	8	9	4	2	1	7	3
1	4	3	5	6	7	8	9	2
3	2	4	6	8	9	7	5	1
4	6	2	1	7	9	8	3	5
9	8	1	2	3	4	5	6	7
8	3	9	4	2	1	6	4	5
7	2	4	6	5	8	9	1	3
5	1	6	3	9	4	2	8	7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2주 \$20, 월 \$3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번호 <input type="text"/>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www.92chickenusa.com

**소자본으로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싶은 창업주 모집**

**치킨, 핫도그, 떡볶이, 소스  
장비박스, 도매, 미국 전지역  
문의 : 770-769-7575**

**92K-corn dog  
K-WINGS<sup>®</sup>  
Korean style Chicken**

**92Chicken  
KOREAN STYLE CHICKEN**

**식당자리 구함! 부동산환영! 90개 매장오픈!  
다양한 노하우로 성공을 만들어 드립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기타 지역  매매

구인

**한식 쿡 구함  
웨이트리스구함  
알래스카-숙식제공**  
(907)456-2060  
(907)888-6666

**알래스카지역**  
\*중식쉐프...0명  
\*스시맨...0명  
취업결격사유없는분  
숙식제공  
(858)337-0982

**알래스카 일식당**  
하루매상 \$3,000  
매매가격 \$30만  
(408)497-1540  
메세지 남겨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알래스카 호텔매매**  
Bethel지역, 13룸  
(907)545-0326

koreadailyus.com

한인사회의  
든든한  
대변인

Koreadailyus.com은  
주류사회에  
한인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치질·출혈 수술 안하고 OK**

항문폴립·변비·요실금 출혈  
직장과 대장암 발병 예방효과  
새끼 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통배 뱃살 요요없이 빠져요**

기적의 티타늄벨트로  
허리통증·냉증도 탈출  
실제사례 www.miracletouchusa.com 검색

**마리클 터치 (213)675-6877**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Hotdeal.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함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COLDWELL BANKER E-mail: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취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6 학년도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수시모집**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20 | TEL: 213-272-6031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6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http://www.HANKOOKMOTORS.COM)

#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